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목 차

1. 산후조리에 관한 일반 사항	3
2.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에 관한 사항	19
3. 집에서 산후조리에 관한 사항	45
4. 산모의 건강에 관한 사항	58
5. 수유에 관한 사항	68
6. 영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6
7. 시사점	80

1. 산후조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산후 6주간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률, 평균이용기간, 만족도(<표1>)

- 2017년 출산한 산모는 산후 6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본인집, 친정, 시집, 산후조리원을 각각 평균 13.2일~22.6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용률 75.1%)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오래 이용한 장소는 본인집(22.6일),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장소는 친정(4.3점)으로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률, 평균이용기간, 만족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에 비해 시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의 이용률이 높고 이용기간이 길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에 있어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6.4%로 읍면부 거주자보다 7.4%p 높게 나타남.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산후조리원 인프라의 접근성(분포 등)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는 다른 연령 집단의 산모와 비교해서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가장 낮고 본인집의 이용률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임. 또한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있어서 25세 미만의 산모는 다른 연령 집단의 산모와 비교해서 이용기간이 가장 짧고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0% 미만인 반면,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를 상회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보임.

- 이는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의 차이를 시사함.
- (출생 순위) 둘째아 이상의 출산모의 본인집 이용률은 첫째아 출산인 경우보다 10.6%p 높게 나타난 반면, 첫째아 출산모의 다른 모든 장소에서의 이용률은 둘째아 이상 출산모보다 높게 나타남.
- 첫째아 출산모는 산후조리에 있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의 필요를 느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매우 높고 (84.1%) 친정과 시집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아 이상의 출산모는 신생아 외에도 산모가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고 산후조리의 경험이 있기때문에 다른 장소에 비해 본인집의 이용률이 높고 이용 기간이 긴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산후조리장소별 이용률, 평균이용기간, 만족도)

(단위 : %, 명)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시집			(명)
	이용률	이용 기간(일)	만족도	이용률	이용 기간(일)	만족도	이용률	이용 기간(일)	만족도	이용률	이용 기간(일)	만족도	
여성 전체	75.1	13.2	4.0	70.2	22.6	3.8	19.8	22.3	4.3	2.4	20.3	3.7	100.0 (2,911)
거주지													
동부	76.4	13.3	4.0	70.6	22.6	3.8	19.9	22.6	4.4	2.3	19.9	3.7	100.0 (2,064)
읍면부	69.0	12.7	3.9	68.3	22.2	3.8	19.3	21.0	4.0	2.9	21.6	3.8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51.4	12.2	3.9	74.8	25.6	3.9	13.6	18.5	4.1	6.4	16.4	3.2	100.0 (109)
25~29세	76.6	12.9	4.0	66.1	21.6	3.8	23.8	24.2	4.3	3.0	22.1	3.7	100.0 (466)
30~34세	77.8	13.2	4.0	70.4	22.4	3.8	21.7	21.3	4.4	2.2	23.0	3.9	100.0 (1,212)
35~39세	73.6	13.2	4.0	71.2	22.9	3.8	16.8	23.1	4.3	2.0	18.0	3.7	100.0 (957)
40세 이상	73.6	14.1	4.1	71.7	22.2	3.5	14.7	22.5	4.4	2.8	13.6	3.6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32.1	11.8	3.9	90.7	23.7	3.6	3.4	23.6	4.1	4.0	20.6	3.8	100.0 (83)
고졸	56.7	12.3	3.9	70.4	23.4	3.5	15.2	22.7	4.1	3.5	17.4	3.6	100.0 (664)
대졸	80.0	13.3	4.0	69.5	22.1	3.8	21.5	22.5	4.4	2.1	21.0	3.8	100.0 (2,005)
대학원졸	87.4	14.1	4.0	71.6	24.0	3.8	19.5	20.2	4.5	2.0	26.3	3.2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80.9	13.5	4.1	68.6	22.1	3.8	22.0	22.2	4.5	2.5	20.4	3.8	100.0 (952)
비취업	72.2	13.0	4.0	71.0	22.8	3.7	18.6	22.5	4.3	2.4	20.2	3.7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7.2	11.7	3.8	60.0	20.4	3.5	10.2	24.5	4.0	4.7	27.0	3.7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54.7	12.8	4.0	80.1	25.5	3.6	12.9	23.6	4.4	1.3	20.8	4.0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68.9	12.8	4.0	67.0	22.5	3.7	23.7	23.2	4.2	3.1	22.4	3.9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76.1	13.0	4.0	72.7	22.4	3.8	19.7	21.2	4.4	2.0	16.8	3.5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78.0	13.0	4.0	73.3	22.5	3.8	18.1	21.5	4.3	1.6	19.8	4.1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78.9	14.1	4.1	72.0	22.2	3.8	15.3	24.1	4.4	2.2	11.8	3.4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87.1	13.5	4.0	60.3	21.8	4.0	23.2	23.6	4.5	4.5	25.1	3.8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87.3	13.8	4.0	63.1	20.7	3.7	28.4	20.6	4.4	0.0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79.4	14.7	4.0	81.3	24.4	3.8	17.9	17.8	4.2	2.8	23.3	2.3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80.7	13.8	4.1	62.4	23.4	3.4	10.1	21.7	4.8	9.4	21.5	3.7	100.0 (37)
1,000만 원 이상	85.5	14.4	4.1	67.3	22.9	3.9	18.8	22.7	4.8	0.4	17.0	4.0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84.1	13.5	4.0	65.2	21.6	3.8	24.6	22.2	4.4	2.6	22.1	3.9	100.0 (1,480)
둘째아 이상	64.9	12.7	4.0	75.8	23.5	3.7	14.3	22.6	4.3	2.2	17.9	3.5	100.0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76.6	13.1	4.0	71.0	23.5	3.8	21.6	22.9	4.4	1.7	22.5	3.9	100.0 (1,506)
제왕절개	73.5	13.3	4.0	69.3	21.5	3.7	17.7	21.7	4.3	3.2	19.0	3.6	100.0 (1,405)

□ 실제 산후조리 기간과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표2>

- 2017년 출산한 산모의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이며 이상적인(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로 나타나 이상과 실제 간 3.7주의 차이가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실제 산후조리 기간 및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실제 산후조리 기간)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가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보다, 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산모에 비해 취업 산모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 900만원 이상인 집단을 제외하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보다 첫째아 출산모의 경우, 자연분만한 경우보다 제왕절개한 산모의 실제 산후조리 기간이 길게 나타남.
 -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가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보다,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산모에 비해 취업 산모인 경우, 대체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보다 첫째아 출산모의 경우, 자연분만한 경우보다 제왕절개한 산모의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이 길게 나타남.
 -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산후조리 기간)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3.7주의 차이가 있었으나, 산모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다르게 나타남.
 -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산후조리 기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월평균 소득 800~900만 원의 고소득 산모로 4.8주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40세 이상 산모의 경우가 4.5주의 차이로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산모, 35세 이상의 산모, 대학원 이상의 교육 수준인 산모의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산후조리 기간의 차이는 4주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실제 산후조리 기간과 이상적인(적당하고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

(단위 :주, 명)

	실제 산후조리 기간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	
	평균(주)	계(명)	평균(주)	계(명)
여성 전체	4.6	2,911	8.3	2,911
거주지				
동부	4.6	2,064	8.3	2,064
읍면부	4.4	847	8.1	847
연령				
25세 미만	4.2	109	7.5	109
25~29세	4.7	466	8.1	466
30~34세	4.6	1,212	8.1	1,212
35~39세	4.5	957	8.5	957
40세 이상	4.4	167	8.9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3.7	83	6.5	83
고졸	3.9	664	7.5	664
대졸	4.7	2,005	8.4	2,005
대학원졸	4.9	159	9.2	159
취업여부				
취업	4.9	952	8.7	952
비취업	4.4	1,959	8.1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4	48	7	48
100~200만 원 미만	4.2	156	7.1	156
200~300만 원 미만	4.3	802	7.9	802
300~400만 원 미만	4.6	773	8.2	773
400~500만 원 미만	4.6	464	8.5	464
500~600만 원 미만	4.7	280	9.1	280
600~700만 원 미만	4.9	151	8.4	151
700~800만 원 미만	5.2	74	9.5	74
800~900만 원 미만	5.1	40	9.9	40
900~1,000만 원 미만	4.7	37	8.7	37
1,000만 원 이상	4.9	86	7.2	86
출생순위				
첫째아	4.8	1,480	8.4	1,480
둘째아 이상	4.2	1,431	8.1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4.5	1,506	8.1	1,506
제왕절개	4.6	1,405	8.5	1,405

□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표3>)

-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75.9%), 본인집(17.7%), 친정(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에 비해 본인 집을 선호하는 비율은 17.1%로 3.8%p 낮게 나타났으나,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76.7%로 4.7%p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의 경우 본인의 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29.1%로 다른 연령의 산모와 비교해서 가장 높게 나타남. 35~39세 산모를 제외하고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산모가 고령일수록 산후조리원을 통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육수준)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집을 선호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산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취업) 산모가 취업인 경우는 비취업인 경우보다 친정과 시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본인 집이나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가구소득)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의 산모는 82.5%가 산후조리원을 선호함. 해당 소득층의 산모를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월평균 900~1,000만 원 미만의 고소득 산모의 경우 86.0%가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격차를 보임.
 - (출생 순위) 둘째아 이상의 출산모는 첫째아 출산모에 비해 산후조

리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77.0%로 2.1%p 높게 나타난 반면, 친정을 선호하는 비율은 4.9%로 2.1%p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표3>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단위 : %, 명)

	본인 집	친정	시집	산후조리원	기타	계 (명)	
여성 전체	17.7	6.0	0.1	75.9	0.2	100.0	(2,911)
거주지							
동부	17.1	5.9	0.1	76.7	0.2	100.0	(2,064)
읍면부	20.9	6.7	0.1	72.0	0.3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29.1	6.7	0.0	64.2	0.0	100.0	(109)
25~29세	19.0	9.2	0.0	71.7	0.1	100.0	(466)
30~34세	16.7	5.2	0.3	77.8	0.0	100.0	(1,212)
35~39세	17.6	5.6	0.1	76.2	0.5	100.0	(957)
40세 이상	16.0	4.8	0.0	78.2	1.0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33.2	8.6	0.0	56.3	1.9	100.0	(83)
고졸	22.8	6.2	0.1	70.3	0.6	100.0	(664)
대졸	16.6	5.9	0.0	77.4	0.1	100.0	(2,005)
대학원졸	12.2	5.5	1.1	81.1	0.0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17.2	6.6	0.3	75.6	0.2	100.0	(952)
비취업	18.0	5.7	0.0	76.0	0.3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1.2	6.3	0.0	82.5	0.0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20.2	8.5	0.0	71.1	0.3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18.8	6.6	0.1	74.4	0.1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18.2	6.2	0.0	75.6	0.0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19.8	6.2	0.0	73.2	0.8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17.0	3.9	0.0	78.9	0.2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16.5	2.3	1.8	79.5	0.0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11.8	5.8	0.0	82.3	0.0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11.2	16.8	0.0	72.0	0.0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12.7	1.3	0.0	86.0	0.0	100.0	(37)
1,000만 원 이상	10.7	6.2	0.0	81.1	2.0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17.9	7.0	0.2	74.9	0.0	100.0	(1,480)
둘째아 이상	17.5	4.9	0.1	77.0	0.5	100.0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17.9	5.6	0.2	76.0	0.3	100.0	(1,506)
제왕절개	17.5	6.4	0.1	75.8	0.2	100.0	(1,405)

□ 배우자의 양육 참여도<표4>

- 산후조리 기간 동안 배우자의 양육 참여 정도는 1점(매우 소극적 참여)~5점(매우 적극적 참여)으로 측정되었는데, 양육관련 항목별 평균 3.3~3.8점 수준(으로‘보통’~‘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남.
 - 항목별 참여 정도는 기저귀갈기와 아기와 놀기가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육아정보 습득의 경우는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의 양육에 있어서의 항목별 참여 정도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모든 양육관련 항목에 있어서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임.
 - (연령) 모든 양육관련 항목에 있어서 산모의 연령이 25세 미만이거나 30~34세의 경우가 배우자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양육의 항목에서 배우자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 (취업) 산모가 취업인 경우 모든 양육의 항목에서 배우자의 참여 정도가 비취업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출생 순위) 초산인 경우 둘째아 이상의 출산인 경우보다 모든 양육의 항목에서 배우자의 참여가 높게 나타남.
 - 이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둘째아 이상의 출산인 경우보다 산모가 양육에 익숙하지 않은 초산인 경우에 배우자의 양육의 참여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4> 산후조리기간 동안 배우자의 양육 참여도(양육관련 항목별 참여 정도)

(단위 : 점, 명)

	기저귀 갈기	수유보조	아기달래기	아기목욕	아기와 놀이	아기 재우기	육아정보 습득	가사일	(명)
여성 전체	3.8	3.5	3.7	3.6	3.8	3.4	3.3	3.5	2,887
거주지									
동부	3.8	3.5	3.7	3.6	3.9	3.4	3.3	3.5	2,046
읍면부	3.6	3.3	3.6	3.5	3.7	3.3	3.1	3.4	841
연령									
25세 미만	3.8	3.6	3.9	3.6	3.9	3.4	3.5	3.2	106
25~29세	3.8	3.5	3.7	3.6	3.8	3.4	3.3	3.6	463
30~34세	3.9	3.5	3.8	3.7	4.0	3.5	3.4	3.6	1,199
35~39세	3.6	3.4	3.6	3.4	3.7	3.4	3.2	3.5	953
40세 이상	3.4	3.2	3.4	3.3	3.5	3.1	2.9	3.0	166
교육수준									
중졸이하	3.2	3.1	3.3	3.1	3.5	3.0	2.8	3.1	80
고졸	3.6	3.3	3.6	3.4	3.7	3.3	3.2	3.4	657
대졸	3.8	3.5	3.8	3.6	3.9	3.5	3.3	3.6	1,993
대학원이상	4.0	3.6	3.9	3.6	4.0	3.5	3.3	3.6	157
취업여부									
취업	3.9	3.6	3.8	3.6	3.9	3.5	3.4	3.6	946
비취업	3.7	3.4	3.7	3.5	3.8	3.3	3.2	3.5	1,941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9	3.6	3.7	3.8	3.8	3.5	3.2	3.6	40
100~200만 원 미만	3.3	3.1	3.4	3.3	3.5	3.1	3.2	3.4	151
200~300만 원 미만	3.7	3.4	3.7	3.6	3.8	3.4	3.3	3.5	797
300~400만 원 미만	3.8	3.5	3.7	3.6	3.9	3.4	3.4	3.6	772
400~500만 원 미만	3.8	3.4	3.7	3.6	3.8	3.5	3.3	3.5	462
500~600만 원 미만	3.9	3.6	3.8	3.6	3.9	3.5	3.4	3.7	280
600~700만 원 미만	3.9	3.5	3.8	3.6	3.8	3.5	3.2	3.4	150
700~800만 원 미만	3.9	3.6	3.9	3.4	3.9	3.5	3.2	3.6	74
800~900만 원 미만	3.7	3.6	3.8	3.2	3.8	3.5	3.3	3.6	40
900~1,000만 원 미만	3.8	3.6	3.7	3.2	3.7	3.5	3.1	3.4	37
1,000만 원 이상	3.7	3.4	3.7	3.4	3.9	3.4	3.1	3.1	84
출생순위									
첫째아	3.9	3.6	3.8	3.8	4.0	3.5	3.4	3.6	1,464
둘째아 이상	3.6	3.3	3.6	3.3	3.7	3.3	3.1	3.4	1,423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표5>,<표6>)

-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1순위)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5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15.4%),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14.3%),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 2순위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27.2%),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21.3%),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14.3%), 산모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을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다음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에 있어서,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1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14.2%),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1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 52.4%로 동부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가 21.0%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교육수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다음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에 있어서, 고졸 이하의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를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산모는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를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 이는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산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취업) 산모가 취업한 경우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42.6%) 다음으로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21.6%), 산모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13.6%)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의 경우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55.4%)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17.3%)로 높게 나타나 산후조리 비용지원(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도는 비취업인 경우가 취업인 경우보다 18.5%p 높게 나타남.
- 비취업모에 비해 산후조리 비용에 관해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모의 경우 출산 후 일·가정 균형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육아참여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소득) 산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대체로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1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산후조리 비용지원(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도는 약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5>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1순위)

(단위 : %, 명)

	1	2	3	4	5	6	계 (명)	
여성 전체	15.4	51.1	10.5	8.4	14.3	0.4	100.0	(2,911)
거주지								
동부	14.2	50.9	11.1	8.8	14.6	0.5	100.0	(2,064)
읍면부	21.0	52.4	7.3	6.4	12.9	0.0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25.3	61.1	1.6	1.1	10.8	0.0	100.0	(109)
25~29세	15.9	53.1	6.7	10.2	14.1	0.0	100.0	(466)
30~34세	13.5	49.5	12.6	9.4	14.3	0.6	100.0	(1,212)
35~39세	15.4	51.2	10.6	7.4	14.9	0.4	100.0	(957)
40세 이상	21.6	50.9	9.2	5.5	12.8	0.0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30.2	46.8	0.9	6.2	15.8	0.0	100.0	(83)
고졸	19.9	62.5	4.3	4.1	8.7	0.4	100.0	(664)
대졸	13.7	49.2	11.3	10.0	15.3	0.4	100.0	(2,005)
대학원졸	15.4	40.2	20.1	5.6	18.6	0.0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11.6	42.6	21.6	13.6	10.5	0.2	100.0	(952)
비취업	17.3	55.4	4.8	5.7	16.2	0.5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3.4	64.6	12.0	0.0	0.0	0.0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15.9	67.5	1.0	7.8	6.7	1.2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16.9	56.0	5.3	5.4	15.5	0.9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16.5	52.8	7.3	8.3	15.0	0.0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12.8	49.3	14.0	10.4	12.9	0.6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14.8	45.0	12.3	11.8	16.0	0.0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12.8	43.6	20.4	11.2	12.0	0.0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11.8	32.6	24.3	5.2	26.1	0.0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11.7	38.4	28.9	11.3	9.7	0.0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13.3	39.9	16.7	13.5	16.7	0.0	100.0	(37)
1,000만 원 이상	16.1	39.8	22.9	8.2	13.0	0.0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14.3	50.9	11.2	9.3	13.9	0.4	100.0	(1,480)
둘째아 이상	16.6	51.3	9.6	7.3	14.7	0.4	100.0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14.6	50.5	10.9	9.0	14.4	0.6	100.0	(1,506)
제왕절개	16.3	51.8	10.0	7.7	14.1	0.2	100.0	(1,405)

주: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2**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3**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4** 산모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5** 배우자의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 **6** 기타

2) 가구소득은 통계청 2017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00%로 하여 산출

<표 6>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2순위)

(단위 : %, 명)

	1	2	3	4	5	6	계 (명)	
여성 전체	27.2	21.3	14.3	13.6	23.4	0.2	100.0	(2,870)
거주지								
동부	26.7	20.4	14.3	14.3	24.2	0.1	100.0	(2,038)
읍면부	29.6	25.9	14.0	10.2	19.6	0.7	100.0	(832)
연령								
25세 미만	35.0	24.5	6.3	8.3	25.9	0.0	100.0	(107)
25~29세	29.9	21.8	13.6	10.5	23.7	0.4	100.0	(457)
30~34세	22.6	20.5	14.4	16.1	26.3	0.2	100.0	(1,202)
35~39세	29.8	22.1	15.0	12.8	20.2	0.2	100.0	(941)
40세 이상	34.3	20.2	15.6	11.6	18.3	0.0	100.0	(163)
교육수준								
중졸이하	32.0	32.3	10.3	9.4	16.0	0.0	100.0	(76)
고졸	36.5	19.4	9.6	10.7	23.6	0.3	100.0	(650)
대졸	24.8	22.3	15.3	13.6	23.8	0.2	100.0	(1,986)
대학원졸	24.2	16.2	17.8	21.2	20.6	0.0	100.0	(158)
취업여부								
취업	20.3	19.5	20.4	18.6	21.0	0.2	100.0	(944)
비취업	30.7	22.3	11.2	11.0	24.6	0.2	100.0	(1,926)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3.5	27.1	12.0	0.0	17.4	0.0	100.0	(45)
100~200만 원 미만	44.0	16.7	10.1	8.9	20.2	0.0	100.0	(155)
200~300만 원 미만	30.8	20.5	11.8	11.0	25.4	0.5	100.0	(788)
300~400만 원 미만	28.4	22.1	11.9	13.3	24.3	0.1	100.0	(763)
400~500만 원 미만	22.0	22.6	15.8	12.7	26.8	0.0	100.0	(458)
500~600만 원 미만	26.4	19.4	22.8	15.3	16.1	0.0	100.0	(277)
600~700만 원 미만	19.1	22.7	20.0	21.4	16.8	0.0	100.0	(150)
700~800만 원 미만	12.0	31.0	14.7	19.7	21.9	0.8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13.3	23.1	15.3	17.5	28.3	2.4	100.0	(39)
900~1,000만 원 미만	20.0	16.2	5.3	23.3	35.2	0.0	100.0	(37)
1,000만 원 이상	22.7	18.0	18.7	19.6	21.0	0.0	100.0	(84)
출생순위								
첫째아	27.3	20.6	14.3	14.1	23.5	0.2	100.0	(1,463)
둘째아 이상	27.0	22.2	14.3	13.0	23.2	0.2	100.0	(1,407)
분만방법								
자연분만	26.9	21.1	13.4	13.9	24.3	0.4	100.0	(1,491)
제왕절개	27.5	21.6	15.2	13.2	22.4	0.0	100.0	(1,379)

주: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2**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3**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4** 산모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5** 배우자의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 **6** 기타

2) 가구소득은 통계청 2017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00%로 하여 산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표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일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임.
- 전체 응답 산모의 64.9%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 산모의 22.9%가 아용하였고, 이용한
산모의 72.9%가 만족(만족+매우 만족)함.
 - (거주지역)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3.7%p 낮게 나타났으나
이용률은 1.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만족+매우 만족)는
5.5%p 낮게 나타남.
 - 읍면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질 높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연령) 40세 이상 산모를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
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출산 관련 건강
이 취약한 25세 미만 산모와 40세 이상 산모의 경우 각 각 27.4%,
15.6%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하여 다른 연령 집단 보
다 높은 이용률을 보임..
 - (교육수준) 대학원 이상 산모를 제외하고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인지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중졸 이하 산모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
 - (취업) 비취업의 경우(25.4%) 산모가 취업한 경우(17.9%)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률이 7.5%p 더 높게 나타남.
 - (출생 순위) 둘째아 이상의 출산인 경우(28.4%) 첫째아 출산인 경우
(18.0%)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률이 10.4%p 더 높게
나타남.

<표 7>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률 및 만족도

(단위 : %, 명)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인지율	계	이용률	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계(명)
여성 전체	64.9	1,887	22.9	693	6.0	21.1	58.2	14.7	100.0 (693)
거주지									
동부	65.5	1,368	22.7	495	6.0	20.1	59.4	14.5	100.0 (495)
읍면부	61.8	519	23.9	198	6.2	25.4	52.6	15.8	100.0 (198)
연령									
25세 미만	52.9	52	27.4	25	8.0	25.2	45.4	21.4	100.0 (25)
25~29세	61.6	286	19.2	94	7.0	20.7	55.4	16.9	100.0 (94)
30~34세	64.6	780	22.4	283	2.2	19.4	62.1	16.4	100.0 (283)
35~39세	68.0	660	24.5	248	8.3	22.9	57.3	11.6	100.0 (248)
40세 이상	64.9	109	25.6	43	15.2	20.3	51.8	12.6	100.0 (43)
교육수준									
중졸이하	43.3	40	14.3	14	0.0	23.2	55.2	21.5	100.0 (14)
고졸	60.7	404	23.2	156	9.6	21.9	57.3	11.2	100.0 (156)
대졸	67.0	1,344	23.2	490	3.9	21.6	58.6	16.0	100.0 (490)
대학원이상	61.6	99	21.2	33	17.8	13.3	57.4	11.6	100.0 (33)
취업여부									
취업	64.8	611	17.9	177	3.7	22.8	61.1	12.3	100.0 (177)
비취업	65.0	1,276	25.4	516	6.9	20.5	57.1	15.6	100.0 (516)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0.7	29	15.8	8	0.0	0.0	100.0	0.0	100.0 (8)
100~200만 원 미만	61.4	94	27.4	42	6.3	15.2	61.5	16.9	100.0 (42)
200~300만 원 미만	68.3	534	31.6	242	8.1	22.4	53.2	16.2	100.0 (242)
300~400만 원 미만	66.2	508	26.7	207	4.4	19.2	59.8	16.6	100.0 (207)
400~500만 원 미만	64.5	299	23.3	118	4.7	26.9	57.0	11.4	100.0 (118)
500~600만 원 미만	63.9	179	16.8	61	0.8	17.5	71.5	10.1	100.0 (61)
600~700만 원 미만	64.7	102	4.0	4	0.0	0.0	100.0	0.0	100.0 (4)
700~800만 원 미만	61.5	47	11.7	5	22.3	30.2	20.2	27.3	100.0 (5)
800~900만 원 미만	55.0	22	2.2	1	0.0	100.0	0.0	0.0	100.0 (1)
900~1,000만 원 미만	42.8	18	4.8	1	0.0	0.0	100.0	0.0	100.0 (1)
1,000만 원 이상	60.9	55	7.0	4	34.2	28.5	37.3	0.0	100.0 (4)
출생순위									
첫째아	61.2	900	18.0	276	7.7	22.7	57.4	12.2	100.0 (276)
둘째아 이상	69.1	987	28.4	417	4.8	19.9	58.7	16.5	100.0 (417)
분만방법									
자연분만	64.4	967	22.7	349	5.2	20.2	61.7	12.9	100.0 (349)
제왕절개	65.5	920	23.1	344	7.0	21.9	54.4	16.7	100.0 (34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표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33.1%의 산모가 지원대상의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23.8%), 건강관리사 이용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15.8%)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을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체로 산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지원대상의 확대와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응답함.
 - (연령) 40세 이상 산모의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이 최저 소득 집단인 경우 24시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임. 한편,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 최고 소득 집단은 지원대상의 확대 다음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건강관리사의 전문성 강화(27.4%)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임.
- 요약하면, 대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 대상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표 8>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 명)

	1	2	3	4	5	6	7	계	
여성 전체	13.0	13.5	23.8	15.8	33.1	1.0	0.0	100.0	(1,887)
거주지									
동부	13.1	12.6	23.7	15.5	34.1	1.0	0.0	100.0	(1,368)
읍면부	12.4	17.8	24.3	17.1	27.8	0.6	0.1	100.0	(519)
연령									
25세 미만	12.8	6.3	28.1	22.1	30.6	0.0	0.0	100.0	(52)
25~29세	15.4	14.0	24.7	16.7	28.8	0.5	0.0	100.0	(286)
30~34세	11.3	12.3	22.5	14.5	38.2	1.2	0.0	100.0	(780)
35~39세	14.1	15.6	23.9	15.0	30.5	0.9	0.0	100.0	(660)
40세 이상	12.5	11.5	27.9	23.6	23.1	1.5	0.0	100.0	(109)
교육수준									
중졸이하	12.4	12.7	25.1	18.4	31.5	0.0	0.0	100.0	(40)
고졸	16.0	12.4	20.6	16.8	33.7	0.5	0.0	100.0	(404)
대졸	12.5	13.6	24.8	15.7	32.2	1.2	0.0	100.0	(1,344)
대학원이상	9.8	15.2	21.8	13.4	39.8	0.0	0.0	100.0	(99)
취업여부									
취업	12.2	10.2	25.0	14.8	37.4	0.3	0.0	100.0	(611)
비취업	13.3	15.1	23.2	16.2	30.9	1.3	0.0	100.0	(1,276)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8.7	5.5	9.0	20.2	26.5	0.0	0.0	100.0	(29)
100~200만 원 미만	20.9	11.5	24.5	18.9	24.2	0.0	0.0	100.0	(94)
200~300만 원 미만	13.7	14.8	23.8	18.5	28.0	1.2	0.0	100.0	(534)
300~400만 원 미만	11.7	12.7	25.5	14.3	34.3	1.4	0.0	100.0	(508)
400~500만 원 미만	12.8	13.1	22.4	17.1	33.0	1.5	0.0	100.0	(299)
500~600만 원 미만	9.5	8.1	27.9	21.2	33.2	0.0	0.0	100.0	(179)
600~700만 원 미만	13.8	11.9	24.3	8.9	41.1	0.0	0.0	100.0	(102)
700~800만 원 미만	15.2	27.3	14.8	1.3	41.4	0.0	0.0	100.0	(47)
800~900만 원 미만	0.0	6.9	10.2	8.4	74.4	0.0	0.0	100.0	(22)
900~1,000만 원 미만	5.7	16.3	21.7	6.9	46.3	3.1	0.0	100.0	(18)
1,000만 원 이상	10.3	27.3	19.8	6.8	35.8	0.0	0.0	100.0	(55)
출생순위									
첫째아	12.3	13.8	23.5	16.7	32.7	1.1	0.0	100.0	(900)
둘째아 이상	13.7	13.2	24.0	14.8	33.4	0.9	0.0	100.0	(987)
분만방법									
자연분만	12.7	13.9	23.9	15.5	33.1	0.8	0.0	100.0	(967)
제왕절개	13.2	13.0	23.6	16.0	33.0	1.1	0.0	100.0	(920)

주:1) **1** 24시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산후조리에 대한 건강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3** 기간에 제한 없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건강관리사 이용경비 지원을 확대함, **5** 지원대상이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6** 홍보, **7** 기타

2.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에 관한 사항

□ 이용한 산후조리원 유형 및 비용<표9>

- 산후조리원 유형 중 산부인과부설 산후조리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60.4%), 비용은 평균 220만 7천원으로 나타남.
- 이용한 산후조리원의 유형과 비용을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는 독립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율이 읍면부 거주 산모에 비해 14.4%p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산후조리원부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율이 동부 거주 산모보다 13.0%p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룸. 평균 비용의 경우 동부 거주 산모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35만 7천원을 더 지불하여 차이를 보임.
 - (연령) 대체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독립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함.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함.
 - (가구소득) 이용한 산후조리원 유형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용에 있어서는 161만 7천 원부터 303만 5천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지불한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출생순위) 이용한 산후조리원 유형에는 출생순위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용에 있어서는 첫째아 출산의 경우(230만 원)가 둘째아 이상의 경우보다 평균 22만 8천 원을 더 지불함.
 - (분만방법) 이용한 산후조리원 유형에는 분만방법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용에 있어서는 제왕절개 분만한 경우(226만 9천 원)가 자연분만한 경우보다 평균 11만 6천 원을 더 지불함.

<표 9> 이용한 산후조리원 유형 및 평균 비용

(단위 : %, 만 원, 명)

	산후조리원 유형				계(명)	평균 비용	(명)	
	독립된 민간	산부인과부설	조산원부설	공공(지자체)				
여성 전체	38.4	60.4	0.7	0.5	2,109	220.7	100.0	(2,109)
거주지								
동부	40.7	58.3	0.7	0.3	1,542	226.4	100.0	(1,542)
읍면부	26.3	71.3	0.7	1.8	567	190.7	100.0	(567)
연령								
25세 미만	24.4	74.4	0.0	1.2	56	172.2	100.0	(56)
25~29세	37.3	61.9	0.0	0.8	337	211.5	100.0	(337)
30~34세	36.7	61.8	1.0	0.5	913	220.0	100.0	(913)
35~39세	40.6	58.3	0.6	0.5	684	224.3	100.0	(684)
40세 이상	47.7	51.1	0.9	0.2	119	252.4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41.8	58.2	0.0	0.0	28	159.7	100.0	(28)
고졸	27.8	69.7	1.1	1.3	376	197.9	100.0	(376)
대졸	39.8	59.2	0.7	0.3	1,567	221.5	100.0	(1,567)
대학원이상	44.2	54.1	0.5	1.3	138	255.9	100.0	(138)
취업여부								
취업	38.3	60.2	0.9	0.6	751	229.4	100.0	(751)
비취업	38.5	60.5	0.6	0.5	1,358	215.8	100.0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8.0	47.6	3.6	0.8	27	161.7	100.0	(27)
100~200만 원 미만	43.8	54.8	0.9	0.5	79	192.6	100.0	(79)
200~300만 원 미만	33.0	65.3	1.1	0.6	537	201.8	100.0	(537)
300~400만 원 미만	35.9	63.6	0.2	0.3	576	204.2	100.0	(576)
400~500만 원 미만	34.0	64.5	1.1	0.5	349	212.5	100.0	(349)
500~600만 원 미만	43.8	54.2	0.5	1.5	219	251.9	100.0	(219)
600~700만 원 미만	45.6	53.9	0.0	0.4	127	247.1	100.0	(127)
700~800만 원 미만	48.9	49.6	1.6	0.0	64	252.5	100.0	(64)
800~900만 원 미만	46.7	53.3	0.0	0.0	31	274.5	100.0	(31)
900~1,000만 원 미만	51.2	46.4	2.5	0.0	28	289.2	100.0	(28)
1,000만 원 이상	49.8	50.2	0.0	0.0	72	303.5	100.0	(72)
출생순위								
첫째아	38.0	60.8	0.7	0.5	1,222	230.0	100.0	(1,222)
둘째아 이상	39.0	59.7	0.8	0.6	887	207.2	100.0	(887)
분만방법								
자연분만	37.0	61.6	0.8	0.6	1,118	215.3	1,118	
제왕절개	39.9	58.9	0.7	0.5	991	226.9	991	

□ 산후조리원 이용 및 비이용 이유[<표10>, <표11>]

-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장소로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자녀 돌봄(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 부담(30.8%)’이 높게 나타남.
 - 산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산후조리원 비이용의 이유의 차이는 대체로 다른 자녀 유무에서 비롯됨. 따라서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연령과 교육수준 자체의 차이보다 다른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될 수 있음.
 - (가구소득) 산모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6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자녀 돌봄’의 이유 다음으로 ‘집에서 산후조리 가능’이 각각 25.9%와 41.5%로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장소로 이용한 이유로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가 가장 높게(36.5%)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18.7%),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1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모의 일반 특성과 상관없이 대체로 이러한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전체적으로 주된 이유로 나타난 세 가지 이유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예: 산후운동·모유수유 관리)을 이용하려고’의 이유가 10.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2.2%p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의 경우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가(26.7%)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9.7%p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연령)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된 이유로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의 경우 40세 이상의 산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39.7%).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된 이유로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응답한 경우는 25~29세 산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연령의 산모를 제외하고 산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35~39세 산모를 제외하고 산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된 이유로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예: 산후운동·모유수유 관리)을 이용하려고’의 이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5세 미만의 산모의 경우는 14.9%가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예: 산후운동·모유수유 관리)을 이용하려고’의 이유에 응답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700~8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이유로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와 ‘산후조리원에서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예: 산후운동·모유수유 관리)을 이용하려고’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3%, 15.5%로 높게 나타남.
- (출생순위) 첫째아 출산인 경우 둘째아 출산인 경우에 비해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는 21.9%p 낮게 나타났고,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응답한 비율은 16.3%p 높게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예: 산후운동·모유수유 관리)을 이용하려고’의 이유를 응답한 비율은 6.2%p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표 10>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비용부담	집에서 산후조리 가능	근처에 없음	미숙아 등을 돌보는 조리원이 없음	다른 자녀 돌봄	감염 안전사고 우려	기타	계(명)
여성 전체	30.8	16.2	0.3	3.8	40.5	6.3	2.1	100.0 (802)
거주지								
동부	29.2	15.6	0.1	4.3	41.5	7.3	2.0	100.0 (522)
읍면부	36.8	18.1	1.0	1.9	36.9	2.8	2.5	100.0 (280)
연령								
25세 미만	45.5	24.2	0.0	1.5	17.4	1.2	10.2	100.0 (53)
25~29세	47.0	22.1	0.8	0.0	21.0	7.6	1.4	100.0 (129)
30~34세	27.3	13.3	0.0	5.1	47.4	6.2	0.7	100.0 (299)
35~39세	24.4	16.3	0.4	4.8	44.1	7.0	2.8	100.0 (273)
40세 이상	33.8	10.1	0.0	1.3	48.9	5.9	0.0	100.0 (48)
교육수준								
중졸이하	40.5	19.0	1.6	0.0	36.2	1.4	1.3	100.0 (55)
고졸	43.0	15.7	0.0	3.6	32.2	2.6	2.9	100.0 (288)
대졸	22.8	15.6	0.4	3.8	47.0	8.5	1.9	100.0 (438)
대학원이상	24.9	25.1	0.0	9.5	27.1	13.4	0.0	100.0 (21)
취업여부								
취업	24.1	21.2	0.0	4.4	39.6	7.2	3.5	100.0 (201)
비취업	33.1	14.4	0.4	3.6	40.8	6.0	1.7	100.0 (601)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71.0	3.2	0.0	6.1	19.6	0.0	0.0	100.0 (21)
100~200만 원 미만	50.2	17.3	1.2	2.0	28.6	0.7	0.0	100.0 (77)
200~300만 원 미만	40.4	10.3	0.0	2.7	39.4	5.7	1.4	100.0 (265)
300~400만 원 미만	17.5	17.2	0.6	6.3	48.8	5.8	3.7	100.0 (197)
400~500만 원 미만	25.4	22.7	0.0	3.6	35.9	10.0	2.5	100.0 (115)
500~600만 원 미만	25.3	25.9	0.0	0.0	40.6	7.0	1.2	100.0 (61)
600~700만 원 미만	19.4	5.9	0.0	9.2	56.5	6.9	2.1	100.0 (24)
700~800만 원 미만	0.0	21.0	0.0	0.0	58.3	20.8	0.0	100.0 (10)
800~900만 원 미만	46.5	8.6	0.0	0.0	7.4	33.9	3.6	100.0 (9)
900~1,000만 원 미만	29.8	0.0	0.0	20.1	37.2	0.0	12.9	100.0 (9)
1,000만 원 이상	11.4	41.5	0.0	0.0	44.1	3.0	0.0	100.0 (14)
출생순위								
첫째아	48.7	30.0	0.5	5.9	0.4	11.0	3.6	100.0 (258)
둘째아 이상	21.7	9.1	0.2	2.7	60.9	4.0	1.4	100.0 (544)

<표 11>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된 이유

(단위 : %, 명)

	1	2	3	4	5	6	7	8	9	10	계(명)
여성 전체	0.8	3.6	7.2	18.5	0.4	18.7	2.9	9.9	36.5	1.4	100.0 (2,109)
거주지											
동부	0.8	3.8	7.0	17.0	0.5	19.0	3.0	10.3	37.1	1.5	100.0 (1,542)
읍면부	0.7	2.5	8.5	26.7	0.2	17.0	2.3	8.1	33.1	0.9	100.0 (567)
연령											
25세 미만	1.9	5.1	4.4	18.2	0.0	20.8	0.4	14.9	33.1	1.2	100.0 (56)
25~29세	2.2	4.5	5.1	14.0	0.2	26.8	3.7	11.7	28.7	3.2	100.0 (337)
30~34세	0.5	4.2	6.9	16.4	0.6	18.6	3.2	10.3	38.3	1.2	100.0 (913)
35~39세	0.4	2.4	9.1	21.7	0.5	16.3	2.8	8.2	37.5	1.0	100.0 (684)
40세 이상	0.8	2.6	6.0	29.6	0.0	9.7	0.0	10.2	39.7	1.3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0.0	13.5	9.6	33.1	0.0	12.4	3.7	0.0	27.7	0.0	100.0 (28)
고졸	0.9	2.7	6.4	31.6	0.2	14.8	3.1	10.2	28.2	1.7	100.0 (376)
대졸	0.8	3.7	6.8	16.1	0.6	20.2	2.7	10.1	37.3	1.6	100.0 (1,567)
대학원이상	0.2	3.0	11.3	15.3	0.0	13.7	3.8	8.8	43.8	0.0	100.0 (138)
취업여부											
취업	0.9	4.9	7.7	15.5	0.6	16.8	3.0	11.2	37.3	1.9	100.0 (751)
비취업	0.7	2.8	6.9	20.2	0.3	19.7	2.9	9.2	36.0	1.2	100.0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0.0	1.8	9.6	23.1	0.0	21.1	0.0	4.3	36.6	3.6	100.0 (27)
100~200만 원 미만	0.0	0.0	8.3	16.8	0.0	20.3	9.3	6.1	35.4	3.7	100.0 (79)
200~300만 원 미만	0.9	4.9	5.9	21.0	0.1	21.0	3.0	8.0	34.8	0.3	100.0 (537)
300~400만 원 미만	0.7	2.6	7.1	20.1	0.3	15.7	2.0	11.0	39.0	1.5	100.0 (576)
400~500만 원 미만	0.8	3.6	7.6	16.0	0.3	17.4	1.6	11.3	39.5	1.8	100.0 (349)
500~600만 원 미만	0.0	2.5	7.6	19.5	2.2	22.6	5.2	5.6	33.7	1.0	100.0 (219)
600~700만 원 미만	1.5	4.2	6.0	15.5	0.0	22.2	3.0	14.5	30.4	2.7	100.0 (127)
700~800만 원 미만	2.7	5.1	11.9	24.8	0.0	9.6	2.4	14.3	28.1	1.2	100.0 (64)
800~900만 원 미만	0.0	11.7	5.9	12.9	0.0	22.8	0.9	6.3	39.6	0.0	100.0 (31)
900~1,000만 원 미만	0.0	6.6	18.3	5.9	0.0	13.5	0.0	9.7	46.0	0.0	100.0 (28)
1,000만 원 이상	1.3	2.1	4.7	10.0	0.7	19.3	4.7	15.5	38.3	3.4	100.0 (72)
출생순위											
첫째아	1.1	4.9	7.5	15.3	0.7	25.3	3.8	12.5	27.6	1.3	100.0 (1,222)
둘째아 이상	0.3	1.6	6.8	23.2	0.1	9.0	1.6	6.3	49.5	1.7	100.0 (887)

주:1) **1** 최신 육아정보를 얻기 위해서, **2**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용해서, **3** 친정이나 시댁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쉬려고, **4**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5** 육아를 함께할 친구 또는 산후조리원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6** 산후조리원의 육아전문가에게 육아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7** 집보다 청결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어서, **8**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예: 산후운동·모유수유 관리)을 이용하려고, **9**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 **10** 기타

□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표12>

-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집이나 병원과 가까운 곳’(52.6%)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 ‘가격 대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곳’(30.7%), ‘친구나 주변 사람의 평판이 좋은 곳’(20.4%), ‘산후조리원 종사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가 전문적이며 우수한 곳’(18.7%)의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에 있어서 산모의 특성에 상관없이 이러한 경향이 대체로 나타남.
 - (거주지역)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집이나 병원과 가까운 곳’다음으로 가격 대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곳’이 34.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 대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곳’(30.7%), ‘친구나 주변 사람의 평판이 좋은 곳’다음으로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는 기준이 1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 25세 미만 산모와 40세 이상의 산모에게 있어서 ‘의사가 주기적으로 회진하며 관리하는 곳’(21.5%, 20.9%)이라는 기준이 다른 연령의 산모보다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이하의 산모의 경우는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는 기준이 2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최저 소득의 경우 ‘집이나 병원과 가까운 곳’(48.9%) 다음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의 비율이 41.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는 기준이 25.7%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 집단과 차이가 나타남. 월 평균 가구소득 100~200만 원 미만의 경우 ‘집이나 병원과 가까운 곳’(40.8%) 다음으로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는 기준이 34.8%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 집단과 차이가 나타남.

<표 12>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중복응답)

(단위 : %, 명)

	1	2	3	4	5	6	7	8	9	10	계(명)
여성 전체	14.3	30.7	52.6	11.1	31.1	20.4	13.7	18.7	0.7	1.5	2,109
거주지											
동부	13.5	29.9	53.0	11.4	32.4	20.7	13.2	19.0	0.7	1.6	1,542
읍면부	18.5	34.8	50.8	9.2	24.3	19.1	16.2	17.3	0.4	1.0	567
연령											
25세 미만	17.9	31.8	50.7	12.8	32.7	12.7	21.5	11.0	0.0	0.0	56
25~29세	10.2	30.9	53.8	15.1	31.0	22.8	13.8	15.8	0.2	1.3	337
30~34세	15.2	30.6	49.5	12.3	31.5	22.0	12.2	19.9	0.5	1.7	913
35~39세	15.6	30.5	55.7	7.8	32.1	18.3	13.9	17.9	1.0	1.7	684
40세 이상	9.9	31.6	56.7	7.9	22.4	16.6	20.9	25.2	1.1	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21.0	31.9	49.1	7.6	35.3	35.5	3.3	14.0	0.0	0.0	28
고졸	15.6	34.1	52.3	9.2	31.4	18.7	17.2	13.3	0.3	1.6	376
대졸	13.8	30.8	52.2	11.8	31.4	20.1	12.7	19.8	0.8	1.6	1,567
대학원이상	15.4	24.4	56.4	8.5	27.9	24.9	16.4	19.4	0.0	0.9	138
취업여부											
취업	14.7	29.8	53.3	12.1	31.3	21.7	11.6	17.7	0.7	1.5	751
비취업	14.1	31.2	52.3	10.5	31.0	19.7	14.9	19.3	0.6	1.5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5.7	22.6	48.9	18.5	41.3	12.3	10.5	4.4	5.2	2.4	27
100~200만 원 미만	34.8	33.2	40.8	3.3	23.4	23.4	17.4	18.2	0.0	1.0	79
200~300만 원 미만	16.0	30.9	52.6	11.6	30.8	21.5	14.3	15.3	0.8	1.4	537
300~400만 원 미만	12.5	35.4	48.8	8.8	33.0	18.3	15.7	20.0	0.2	1.5	576
400~500만 원 미만	13.5	29.4	54.1	13.1	24.1	24.8	13.3	18.1	0.8	2.7	349
500~600만 원 미만	10.9	28.7	60.4	12.3	28.5	19.6	12.4	20.8	1.2	1.0	219
600~700만 원 미만	17.5	24.6	49.1	10.2	39.9	17.7	12.7	24.2	0.0	0.0	127
700~800만 원 미만	7.7	27.5	52.4	10.9	40.0	28.4	9.0	8.8	3.0	2.2	64
800~900만 원 미만	21.0	6.9	74.0	17.6	38.4	11.8	5.7	22.2	0.0	0.0	31
900~1,000만 원 미만	12.4	30.4	65.9	13.5	24.9	20.8	8.1	15.5	0.0	0.0	28
1,000만 원 이상	3.1	32.5	55.0	13.8	36.4	14.0	11.6	29.8	0.0	2.3	72
출생순위											
첫째아	10.7	30.5	51.7	11.0	33.2	23.7	14.0	18.8	0.7	0.6	1,222
둘째아 이상	19.4	31.0	54.0	11.1	28.0	15.6	13.3	18.5	0.5	2.8	887

주:1) **1**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곳, **2** 가격대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곳, **3** 집이나 병원과 가까운 곳, **4** 시설(인테리어 등)이 우수한 곳, **5**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 **6** 친구나 주변 사람의 평판이 좋은 곳, **7** 의사가 주기적으로 회진하며 관리하는 곳, **8** 종사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가 전문적이며 우수한 곳, **9**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곳, **10** 기타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사용 경험과 관련 인식<표13>, <표 14>

-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모자동실을 사용한 경우는 ‘신생아 수유 때’(9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생아실 청소할 때’(64.9%), ‘신생아가 보고 싶을 때’(6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항상 모자동실을 사용한 경우는 1.3%에 불과함.
 -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모자동실을 사용한 경우의 경향성에 있어서 산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 항상 모자동실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3.0%에 불과함.
 - (연령) 25세 미만 산모의 경우 ‘외부 방문객이 올 때’가 35.0%로 다른 산모의 특성에 따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 ‘외부 방문객이 올 때’가 47.3%로 다른 산모의 특성에 따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대학원 이상의 산모는 항상 모자동실을 사용한 비율이 2.8%로 나타나 다른 산모의 특성에 따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사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4.2시간으로, 이상적인 사용 시간은 4.3시간으로 나타남. 이상적인 사용 시간과 실제 사용 시간과의 차이는 산모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0.4 ~ 0.4 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는 모자동실을 하루 평균 3.7시간 사용하여 다른 연령 집단보다 가장 짧게 사용하였고, 35~39세 산모는 모자동실을 하루 평균 4.4시간 사용하여 가장 길게 사용하였음. 이상적인 사용 시간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집단은 40세 이상 산모로 0.4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 (교육수준) 대체로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루 평균 모자동실을 이용한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중졸 이하 산모는 모자동실을 하루 평균 3.1시간 사용하여 다른 연령 집단보다 가장 짧게 사용하였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산모는 모자동실을 하루

평균 5.0시간 사용하여 가장 길게 사용하였음. 이상적인 사용 시간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집단은 중졸 이하의 산모로 0,4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표 13> 산후조리원에서 실제 모자동실을 사용했던 경우(중복응답)

(단위 : %, 명)

	1	2	3	4	5	6	7	8	계(명)
여성 전체	1.3	92.7	7.4	10.0	60.2	15.9	64.9	1.6	2,109
거주지									
동부	1.4	92.3	7.3	10.1	61.1	15.8	66.4	1.7	1,542
읍면부	1.0	95.3	8.0	9.3	55.5	16.3	56.9	0.9	567
연령									
25세 미만	0.0	93.4	21.4	12.0	67.0	35.0	52.4	1.2	56
25~29세	1.9	90.4	4.5	13.7	61.9	13.2	62.6	1.6	337
30~34세	1.1	91.9	7.8	9.3	59.4	14.9	65.8	1.7	913
35~39세	1.6	94.4	5.7	8.6	59.5	17.0	65.4	1.6	684
40세 이상	0.0	96.5	16.1	11.4	63.3	16.9	67.4	1.4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1.9	72.7	11.9	19.2	52.1	47.3	8.2	13.7	28
고졸	1.2	93.2	9.4	8.7	62.9	19.5	60.9	1.4	376
대졸	1.1	93.0	7.2	9.7	59.5	15.0	65.4	1.5	1,567
대학원이상	2.8	91.4	5.8	13.7	62.0	14.5	72.1	1.8	138
취업여부									
취업	1.7	91.5	6.2	9.6	61.0	15.5	65.0	1.7	751
비취업	1.1	93.4	8.1	10.2	59.8	16.1	64.9	1.6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0.0	87.4	12.6	4.8	56.5	14.9	62.5	9.6	27
100~200만 원 미만	0.0	98.6	14.1	12.1	65.1	10.3	79.9	1.2	79
200~300만 원 미만	1.9	92.3	4.5	9.9	60.4	17.1	61.6	1.8	537
300~400만 원 미만	1.0	94.2	7.7	7.8	57.1	15.4	61.0	1.5	576
400~500만 원 미만	1.7	90.7	8.2	9.1	62.8	19.5	62.9	0.9	349
500~600만 원 미만	1.2	92.4	9.9	12.1	63.9	16.0	66.7	1.8	219
600~700만 원 미만	2.2	93.3	7.0	15.0	60.4	12.1	69.6	2.1	127
700~800만 원 미만	0.0	95.6	8.9	6.7	55.9	14.1	71.5	2.4	64
800~900만 원 미만	0.0	94.7	0.9	10.4	65.8	15.3	75.1	2.2	31
900~1,000만 원 미만	0.0	88.5	2.5	1.8	51.8	9.4	82.4	0.0	28
1,000만 원 이상	0.4	88.6	9.1	18.9	60.4	13.6	73.6	0.8	72
출생순위									
첫째아	1.1	93.0	6.5	10.6	62.2	14.9	65.3	1.9	1,222
둘째아 이상	1.5	92.3	8.7	9.0	57.4	17.3	64.4	1.2	887

주:1) **1** 항상(모자동실), **2** 신생아 수유 때, **3** 신생아 목욕 때, **4** 양육 교육 받을 때, **5** 신생아가 보고 싶을 때, **6** 외부 방문객이 올 때, **7** 신생아실 청소할 때, **8** 기타

<표 14> 모자동실을 사용한 시간 및 이상적인 사용 시간

(단위 : 시간, 명)

	하루 평균 이용 시간	계	이상적인 이용 시간	계
여성 전체	4.2	2,109	4.3	2,109
거주지				
동부	4.2	1,542	4.3	1,542
읍면부	4.3	567	4.3	567
연령				
25세 미만	3.7	56	3.7	56
25~29세	4.2	337	4.0	337
30~34세	4.2	913	4.3	913
35~39세	4.4	684	4.4	684
40세 이상	4.1	119	4.5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3.1	28	3.5	28
고졸	4.3	376	4.2	376
대졸	4.2	1,567	4.2	1,567
대학원이상	5.0	138	5.0	138
취업여부				
취업	4.4	751	4.6	751
비취업	4.2	1,358	4.1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8	27	3.4	27
100~200만 원 미만	4.6	79	4.2	79
200~300만 원 미만	4.3	537	4.2	537
300~400만 원 미만	4.1	576	4.1	576
400~500만 원 미만	4.3	349	4.6	349
500~600만 원 미만	4.3	219	4.3	219
600~700만 원 미만	4.2	127	4.5	127
700~800만 원 미만	4.2	64	4.3	64
800~900만 원 미만	4.6	31	5.0	31
900~1,000만 원 미만	4.1	28	4.4	28
1,000만 원 이상	4.1	72	4.5	72
출생순위				
첫째아	4.2	1,222	4.2	1,222
둘째아 이상	4.3	887	4.3	887

□ 산후조리원에서의 모자동실의 필요 및 불필요 이유<표15>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 산모의 52.4%(1,105명)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7.6%(1,004명)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모의 과반수가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65.4%)라고 그 이유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모유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20.0%)를 그 다음으로 응답함.
 - (연령) 29세 미만의 산모의 경우 모자동실이 필요한 이유로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다음으로 ‘아이에 대해 잘 적응하기 위해서’(25세 미만: 14.3%; 25~29세 미만: 16.0%)의 이유가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의 최고 소득 집단의 산모의 경우 모자동실이 필요한 이유로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다음으로 ‘아이에 대해 잘 적응하기 위해서’의 이유가 11.3~21.2%로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산모의 대부분이 그 이유를 ‘산모의 신체 회복을 위해서’(94.3%)라고 응답함.
 - (교육수준) 중졸이하의 산모의 경우 모자동실이 불필요한 이유로 ‘산모의 신체 회복을 위해서’다음으로 ‘전문인력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서’의 이유가 32.9%로 높게 나타남.

<표 15> 모자동실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생각

(단위 : %, 명)

	필요1)						불필요2)				
	1	2	3	4	5	계(명)	1	2	3	4	계(명)
여성 전체	65.4	20.0	1.7	12.9	0.1	100.0 (1,105)	94.3	4.9	0.2	0.6	100.0 (1,004)
거주지											
동부	65.4	20.0	1.9	12.6	0.0	100.0 (811)	94.4	4.8	0.2	0.6	100.0 (731)
읍면부	65.1	19.6	0.6	14.4	0.4	100.0 (294)	93.9	5.3	0.0	0.8	100.0 (273)
연령											
25세 미만	75.6	10.1	0.0	14.3	0.0	100.0 (34)	87.8	12.2	0.0	0.0	100.0 (22)
25~29세	69.4	13.5	1.2	16.0	0.0	100.0 (184)	96.0	3.5	0.0	0.5	100.0 (153)
30~34세	63.4	21.1	2.3	13.1	0.1	100.0 (490)	95.0	3.3	0.5	1.2	100.0 (423)
35~39세	65.5	23.3	1.6	9.7	0.0	100.0 (334)	93.5	6.5	0.0	0.0	100.0 (350)
40세 이상	63.9	16.8	0.0	19.3	0.0	100.0 (63)	92.2	7.8	0.0	0.0	100.0 (56)
교육수준											
중졸이하	73.6	26.4	0.0	0.0	0.0	100.0 (17)	67.1	32.9	0.0	0.0	100.0 (11)
고졸	63.5	21.0	1.8	13.4	0.4	100.0 (199)	95.2	4.3	0.6	0.0	100.0 (177)
대졸	66.8	18.8	1.5	12.9	0.0	100.0 (813)	94.0	5.0	0.1	0.8	100.0 (754)
대학원이상	56.7	27.2	3.3	12.8	0.0	100.0 (76)	97.1	2.9	0.0	0.0	100.0 (62)
취업여부											
취업	62.3	20.7	2.4	14.4	0.2	100.0 (404)	94.7	3.5	0.6	1.3	100.0 (347)
비취업	67.2	19.5	1.3	12.0	0.0	100.0 (701)	94.1	5.7	0.0	0.2	100.0 (657)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6.5	32.6	20.1	10.5	0.0	100.0 (12)	92.9	7.1	0.0	0.0	100.0 (15)
100~200만 원 미만	74.8	14.3	4.4	6.5	0.0	100.0 (45)	94.5	5.5	0.0	0.0	100.0 (34)
200~300만 원 미만	72.6	14.5	1.2	11.8	0.0	100.0 (288)	93.8	5.9	0.0	0.3	100.0 (249)
300~400만 원 미만	63.4	22.3	1.3	13.0	0.0	100.0 (279)	93.9	4.8	0.3	1.0	100.0 (297)
400~500만 원 미만	63.4	21.9	1.9	12.9	0.0	100.0 (198)	98.3	1.7	0.0	0.0	100.0 (151)
500~600만 원 미만	58.7	25.4	1.9	14.0	0.0	100.0 (106)	93.3	6.1	0.0	0.6	100.0 (113)
600~700만 원 미만	67.3	14.3	2.2	16.2	0.0	100.0 (72)	85.8	11.5	0.0	2.6	100.0 (55)
700~800만 원 미만	46.3	47.0	0.0	5.1	1.6	100.0 (34)	97.4	2.6	0.0	0.0	100.0 (30)
800~900만 원 미만	78.4	10.3	0.0	11.3	0.0	100.0 (19)	100.0	0.0	0.0	0.0	100.0 (12)
900~1,000만 원 미만	63.6	15.4	0.0	21.1	0.0	100.0 (15)	95.2	0.0	4.8	0.0	100.0 (13)
1,000만 원 이상	67.1	11.6	0.0	21.2	0.0	100.0 (37)	99.3	0.7	0.0	0.0	100.0 (35)
출생순위											
첫째아	66.6	18.6	1.8	12.9	0.1	100.0 (711)	94.0	5.5	0.2	0.3	100.0 (511)
둘째아 이상	62.9	22.6	1.6	12.9	0.0	100.0 (394)	94.6	4.2	0.2	1.0	100.0 (493)

주: 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 **2** 모유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 감염 예방을 위해, **4** 아이에 대해 잘 적응하기 위해, **5** 기타
 2)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산모의 신체 회복을 위해서, **2** 전문 인력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서, **3**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질병 등)로 여건이 안되서, **4** 산모 대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5** 기타

□ 산후조리원에서의 교육 항목별 필요도 및 경험률<표16>

- 산후조리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실제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교육은 모유수유 교육(94.2%)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생아 돌봄 교육(93.7%), 신생아 안전 교육(93.1%), 산모건강관리 교육(91.3%)임.
 - 실제로 가장 많은 산모가 받은 교육은 모유수유 교육(91.4%)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생아 돌봄 교육(89.3%), 산모건강관리 교육(70.6%), 신생아 안전 교육(63.7%)으로 나타남.
 - 필요도와 실제 경험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교육은 산모 안전교육으로 필요도와 실제 경험률의 차이가 42.2%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실제 받은 교육의 경험률을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에 비해 성생활 및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의 경험률도 높게 나타남.
 - (연령) 35~39세 산모의 경우는 신생아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3%로 다른 교육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세 이상 산모는 신생아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1.0%로 다른 교육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는 모유수유 교육과 산모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4%로 다른 교육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는 신생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9%로 다른 교육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생순위) 첫째아 출산의 경우는 모든 교육 항목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표 16>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교육 항목별 필요도 및 경험률

(단위 : 점)

	산모 건강관리		성생활 피임방법		신생아 돌봄		신생아 안전		산모 안전		모자동실		모유수유		계(명)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여성 전체	91.3	70.6	51.2	29.9	93.7	89.3	93.1	63.7	74.8	32.6	74.5	51.3	94.2	91.4	(2,109)
거주지															
동부	92.1	71.4	51.1	30.0	94.5	90.1	94.1	64.8	76.1	32.8	75.3	52.3	94.9	91.8	(1,542)
읍면부	86.9	66.2	51.7	29.2	89.3	84.8	88.0	58.0	67.8	31.2	70.3	45.9	90.5	89.2	(567)
연령															
25세 미만	94.5	79.9	65.8	37.5	97.1	84.3	99.0	61.7	82.8	27.4	85.5	47.2	98.8	86.7	(56)
25~29세	93.6	68.0	51.2	32.9	94.6	92.3	93.7	67.4	73.0	31.5	73.8	53.0	96.6	92.5	(337)
30~34세	91.2	71.0	49.8	27.4	94.4	89.0	94.0	62.9	75.0	30.4	75.6	50.4	94.8	91.5	(913)
35~39세	91.3	70.5	53.1	30.7	93.3	89.7	91.7	63.1	75.5	34.8	73.6	53.1	93.0	92.4	(684)
40세 이상	84.7	71.7	45.1	32.8	85.7	82.2	91.0	63.8	71.8	41.5	69.0	45.7	88.3	83.3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96.4	75.2	56.7	52.3	90.7	79.1	90.1	71.1	76.9	58.4	74.8	63.7	96.4	81.9	(28)
고졸	90.0	69.2	58.7	37.5	94.5	86.9	92.8	70.5	75.4	36.6	73.8	49.2	95.4	91.1	(376)
대졸	91.6	70.9	50.0	28.7	93.2	89.7	92.9	62.7	74.4	31.5	74.7	51.1	93.7	90.9	(1,567)
대학원이상	90.7	70.3	48.1	25.3	96.4	90.6	95.6	60.0	76.7	32.6	74.7	55.2	96.1	96.0	(138)
취업여부															
취업	92.7	70.8	50.9	27.8	94.9	90.0	93.9	61.7	75.4	29.9	76.2	53.3	94.4	92.9	(751)
비취업	90.6	70.5	51.3	31.1	93.0	88.8	92.7	64.9	74.5	34.1	73.6	50.2	94.1	90.5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92.2	65.7	50.2	44.0	92.5	87.9	92.3	57.5	75.9	23.6	67.3	39.9	98.0	94.8	(27)
100~200만 원 미만	95.1	66.2	56.1	40.6	100.0	89.9	98.9	73.6	78.7	48.9	71.6	47.1	100.0	93.3	(79)
200~300만 원 미만	90.4	67.8	54.8	32.6	93.7	89.6	92.1	61.3	71.8	29.9	75.0	48.3	94.6	91.9	(537)
300~400만 원 미만	91.5	71.6	54.0	28.1	91.9	88.2	93.1	65.2	75.9	31.8	74.0	49.7	93.1	89.7	(576)
400~500만 원 미만	89.9	71.1	46.0	31.7	93.4	87.4	91.8	65.3	74.4	32.8	76.4	51.4	93.6	91.9	(349)
500~600만 원 미만	93.7	71.2	48.7	29.8	95.2	91.8	94.3	64.2	75.3	34.9	69.0	51.6	93.8	92.1	(219)
600~700만 원 미만	91.7	79.1	44.7	26.0	91.9	91.7	93.8	61.4	81.0	40.6	81.4	65.6	94.4	91.7	(127)
700~800만 원 미만	97.8	70.2	52.2	26.8	98.0	85.7	93.3	59.6	73.7	24.2	77.1	44.5	92.7	87.6	(64)
800~900만 원 미만	98.2	66.3	69.0	16.6	100.0	93.6	99.1	63.4	83.3	10.7	88.6	67.1	99.2	95.6	(31)
900~1,000만 원 미만	91.7	67.0	54.9	14.5	97.0	92.4	97.6	50.5	63.3	21.9	69.9	50.1	99.3	89.4	(28)
1,000만 원 이상	82.3	69.9	37.3	27.3	92.0	89.7	90.0	67.1	73.5	38.2	69.9	59.0	93.1	93.5	(72)
출생순위															
첫째아	95.7	70.4	54.0	30.2	97.5	92.1	97.0	64.7	78.7	32.9	79.3	53.3	98.6	93.2	(1,222)
둘째아 이상	85.0	70.8	47.1	29.4	88.0	85.2	87.5	62.3	69.2	32.1	67.5	48.4	87.9	88.7	(887)

□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교육 항목별 도움 정도<표17>

- 산후조리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를 1점(전혀 도움 안 됨)~5점(매우 도움 됨)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과 모유수유 교육(4.1점)으로 나타남.
 - 신생아 돌봄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4.0~4.3점, 모유수유 방법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3.8~4.3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산모의 특성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모가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응답함.

- 신생아 돌봄 교육과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 다음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교육은 신생아 안전 교육(4점), 산모 건강관리 교육(3.8점), 산모 안전교육(3.8점), 모자동실 교육(3.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 신생아 돌봄 교육(4.3점), 신생아 안전 교육(4.3점)에 대한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산모의 경우 신생아 돌봄 교육(4.2점), 신생아 안전 교육(4.1점) 순으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최저 소득 집단의 경우는 모자동실 교육(4.4점)을 가장 도움이 된 교육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신생아 돌봄 교육(4.3점)을 가장 도움이 된 교육으로 응답함.

<표 17>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교육 항목별 도움정도

(단위 : 점)

	산모 건강관리	성생활 피임방법	신생아 돌봄	신생아 안전	산모 안전	모자동실	모유수유
여성 전체	3.8	3.7	4.1	4.0	3.8	3.8	4.1
거주지							
동부	3.8	3.7	4.1	4.0	3.8	3.8	4.1
읍면부	3.8	3.7	4.1	4.0	3.8	3.8	4.0
연령							
25세 미만	3.8	3.9	4.2	4.0	4.1	4.1	4.3
25~29세	3.8	3.6	4.0	3.9	3.8	3.8	4.0
30~34세	3.9	3.9	4.2	4.0	3.7	3.9	4.1
35~39세	3.8	3.5	4.1	3.9	3.8	3.8	4.1
40세 이상	3.8	3.6	4.1	3.9	3.7	3.8	4.0
교육수준							
중졸이하	4.2	3.7	4.3	4.3	4.2	3.5	3.8
고졸	3.8	3.5	4.0	3.9	3.7	3.8	4.1
대졸	3.8	3.7	4.1	4.0	3.8	3.8	4.1
대학원이상	4.0	4.0	4.2	4.1	4.0	3.8	4.0
취업여부							
취업	3.9	3.8	4.2	4.0	3.9	3.9	4.1
비취업	3.8	3.6	4.1	4.0	3.7	3.8	4.1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0	3.9	4.3	4.2	4.1	4.4	4.1
100~200만 원 미만	3.8	3.8	4.1	4.1	3.8	3.7	4.2
200~300만 원 미만	3.8	3.7	4.0	3.9	3.8	3.7	4.0
300~400만 원 미만	3.8	3.7	4.2	4.1	3.8	3.9	4.1
400~500만 원 미만	3.7	3.5	4.0	3.8	3.6	3.8	4.0
500~600만 원 미만	3.9	4.0	4.2	4.1	4.0	4.0	4.2
600~700만 원 미만	3.8	3.4	4.2	4.1	3.6	3.8	4.2
700~800만 원 미만	3.9	3.5	4.1	4.0	3.8	3.8	3.9
800~900만 원 미만	3.6	3.2	4.2	3.7	3.1	3.7	4.2
900~1,000만 원 미만	3.7	3.9	4.3	3.8	4.0	3.3	3.9
1,000만 원 이상	3.9	4.0	4.1	4.0	3.9	3.9	4.1
출생순위							
첫째아	3.8	3.8	4.1	4.0	3.8	3.9	4.1
둘째아 이상	3.8	3.6	4.1	3.9	3.8	3.7	4.1

□ 산후조리원 이용 전 항목별 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표18>]

- 산후조리원 이용 전 각 항목별 교육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 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88.4%), 다음으로 방문객 관리계획(87.6%), 보안계획(소지품 보관, 외부출입 등)(82.7%), 감염예방관리계획(68.3%), 의료기관 이송계획(50.8%),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36.7%)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의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만족 +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은) 교육은 감염 예방관리계획 교육(59.1%)으로 나타났음.
 - 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의 항목별 만족도(‘만족 + 매우 만족’의 비율)는 방문객 관리계획(57.4%),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 규정과 관련된 교육(54.9%), 보안계획(소지품 보관, 외부출입 등)(54.3%), 의료기관 이송계획(54.2%),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48.7%)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의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의 경우 교육 받은 비율은 36.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도 4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8> 산후조리원에서 시설 이용 전 항목별 교육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 명)

	교육 받지 않음	교육 받음					소계(명)	계(명)
	소계(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규정	11.6 (246)	0.5	4.6	40.1	41.8	13.1	100.0 (1,863)	100.0 (2,109)
보안계획(소지품 보관, 외부출입 등)	17.3 (366)	0.2	4.5	41.0	40.8	13.5	100.0 (1,743)	100.0 (2,109)
소방 안전 및 대피계획	63.3 (1,342)	0.6	5.3	45.4	35.3	13.4	100.0 (767)	100.0 (2,109)
방문객 관리계획	12.4 (282)	0.6	4.4	37.7	42.7	14.7	100.0 (1,827)	100.0 (2,109)
감염예방관리계획	31.7 (708)	0.7	4.1	36.0	44.2	14.9	100.0 (1,401)	100.0 (2,109)
의료기관 이송계획	49.2 (1,125)	0.3	6.0	39.4	40.4	13.8	100.0 (984)	100.0 (2,109)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가능성 및 감염관리 정도에 대한 인지도 및 감염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견해(<표19>, <표20>, <표21>)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가능성 인지 정도는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 ‘알고 있으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가 48.6%,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9.4%,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 모름)를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 둘째아 이상 출산모보다 첫째아 출산모의 경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6.3%p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관리 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미흡(2.6%), 미흡(8.0%), 보통(25.6%), 잘함(51.7%), 매우 잘함(12.1%)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관리 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매우 미흡(1점)~매우 잘함(5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3.6점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산후조리원 자체의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35.4%로 나타남.
 - 25세 미만의 산모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는 부모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는 견해에 각 각 9.7%, 11.3%로 비교적 높게 응답함.

<표 19>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명)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용	알고 있으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모름	계
여성 전체	36.0	48.6	9.4	6.0	100.0 (2,109)
거주지					
동부	35.6	48.8	9.5	6.1	100.0 (1,542)
읍면부	38.2	47.3	9.3	5.3	100.0 (567)
연령					
25세 미만	33.7	53.3	7.1	5.9	100.0 (56)
25~29세	34.3	47.3	9.9	8.5	100.0 (337)
30~34세	33.5	49.4	9.7	7.4	100.0 (913)
35~39세	39.6	47.3	9.5	3.5	100.0 (684)
40~44세	40.2	50.8	6.7	2.3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20.6	23.7	23.5	32.2	100.0 (28)
고졸	35.7	45.7	9.5	9.1	100.0 (376)
대졸	36.5	48.9	9.2	5.4	100.0 (1,567)
대학원이상	33.7	52.4	10.3	3.6	100.0 (138)
취업여부					
취업	34.0	52.2	7.8	6.0	100.0 (751)
비취업	37.1	46.5	10.4	6.0	100.0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6.0	35.8	5.1	3.0	100.0 (27)
100~200만 원 미만	37.0	36.0	18.1	9.0	100.0 (79)
200~300만 원 미만	34.1	48.2	10.2	7.6	100.0 (537)
300~400만 원 미만	37.6	49.3	8.4	4.7	100.0 (576)
400~500만 원 미만	40.0	46.3	7.8	5.9	100.0 (349)
500~600만 원 미만	39.1	48.9	7.6	4.5	100.0 (219)
600~700만 원 미만	28.8	52.9	10.3	8.0	100.0 (127)
700~800만 원 미만	22.8	62.8	6.7	7.7	100.0 (64)
800~900만 원 미만	26.8	57.1	10.4	5.7	100.0 (31)
900~1,000만 원 미만	50.1	28.8	16.3	4.8	100.0 (28)
1,000만 원 이상	25.4	56.8	14.1	3.7	100.0 (72)
출생순위					
첫째아	33.3	48.7	10.4	7.6	100.0 (1,222)
둘째아 이상	39.9	48.4	8.0	3.7	100.0 (887)

<표 20>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계
여성 전체	2.6	8.0	25.6	51.7	12.1	3.6	100.0 (2,109)
거주지							
동부	2.8	7.9	25.3	52.1	12.0	3.6	100.0 (1,542)
읍면부	1.9	8.4	27.7	49.6	12.5	3.6	100.0 (567)
연령							
25세 미만	2.2	6.9	27.6	53.6	9.7	3.6	100.0 (56)
25~29세	4.0	7.4	23.2	48.2	17.3	3.7	100.0 (337)
30~34세	2.5	8.5	27.7	50.6	10.8	3.6	100.0 (913)
35~39세	1.8	7.9	25.2	54.3	10.8	3.6	100.0 (684)
40~44세	4.4	6.7	18.5	54.7	15.7	3.7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0.0	4.3	38.4	51.1	6.3	3.6	100.0 (28)
고졸	3.1	7.3	26.0	49.7	13.9	3.6	100.0 (376)
대졸	2.2	8.5	24.3	53.3	11.7	3.6	100.0 (1,567)
대학원이상	5.6	5.1	34.7	42.4	12.2	3.5	100.0 (138)
취업여부							
취업	2.8	8.4	25.3	52.2	11.4	3.6	100.0 (751)
비취업	2.5	7.7	25.9	51.4	12.5	3.6	100.0 (1,358)
가소득							
100만원미만	7.8	2.4	24.5	57.0	8.3	3.6	100.0 (27)
100~200만원미만	3.9	9.7	21.9	50.2	14.3	3.6	100.0 (79)
200~300만원미만	4.0	5.1	27.7	50.1	13.1	3.6	100.0 (537)
300~400만원미만	0.7	9.4	24.6	53.0	12.3	3.7	100.0 (576)
400~500만원미만	2.3	10.1	22.8	53.9	10.8	3.6	100.0 (349)
500~600만원미만	1.6	3.4	24.6	56.4	14.0	3.8	100.0 (219)
600~700만원미만	3.1	8.1	23.2	50.1	15.5	3.7	100.0 (127)
700~800만원미만	0.0	11.6	38.2	42.7	7.5	3.5	100.0 (64)
800~900만원미만	7.9	11.9	23.5	54.7	1.9	3.3	100.0 (31)
900~1,000만원미만	4.8	1.7	51.2	39.7	2.7	3.3	100.0 (28)
1,000만원이상	6.1	17.2	21.8	45.2	9.7	3.4	100.0 (72)
출생순위							
첫째아	3.1	6.0	26.6	50.8	13.5	3.7	100.0 (1,222)
둘째아 이상	1.9	10.8	24.2	53.0	10.0	3.6	100.0 (887)

<표 21>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산후조리원 자체 감염관리 강화	부모의 감염병 예방 실천	지사체 관리감독 강화	기타	계	
전체	59.9	4.7	35.4	0.0	100.0	(2,109)
거주지						
동부	60.6	4.7	34.7	0.0	100.0	(1,542)
읍면부	56.0	4.7	39.3	0.0	100.0	(567)
연령						
25세 미만	61.7	9.7	28.6	0.0	100.0	(56)
25~29세	57.9	7.9	34.2	0.0	100.0	(337)
30~34세	60.3	3.8	35.9	0.0	100.0	(913)
35~39세	61.1	3.8	35.1	0.0	100.0	(684)
40~44세	54.1	5.4	40.5	0.0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58.4	11.3	30.3	0.0	100.0	(28)
고졸	59.8	5.2	35.0	0.0	100.0	(376)
대졸	58.9	4.4	36.7	0.0	100.0	(1,567)
대학원이상	67.5	5.7	26.9	0.0	100.0	(138)
취업여부						
취업	60.9	5.5	33.5	0.0	100.0	(751)
비취업	59.3	4.2	36.5	0.0	100.0	(1,35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4.0	4.7	41.3	0.0	100.0	(27)
100~200만 원 미만	57.5	7.4	35.1	0.0	100.0	(79)
200~300만 원 미만	57.3	4.2	38.4	0.0	100.0	(537)
300~400만 원 미만	63.5	4.3	32.3	0.0	100.0	(576)
400~500만 원 미만	58.9	5.7	35.4	0.0	100.0	(349)
500~600만 원 미만	61.1	3.1	35.8	0.0	100.0	(219)
600~700만 원 미만	61.6	6.8	31.6	0.0	100.0	(127)
700~800만 원 미만	56.0	4.6	39.4	0.0	100.0	(64)
800~900만 원 미만	57.4	0.0	42.6	0.0	100.0	(31)
900~1,000만 원 미만	46.9	8.0	45.1	0.0	100.0	(28)
1,000만 원 이상	62.6	4.1	33.3	0.0	100.0	(72)
출생순위						
첫째아	59.3	5.0	35.7	0.0	100.0	(1,222)
둘째아 이상	60.7	4.3	35.0	0.0	100.0	(887)

□ 산후조리원 방문객 허용 범위에 관한 견해<표22>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면담 시의 방문객별 허용범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허용 여부는 배우자, 부모, 그 외 가족 및 친척, 지인 순으로 허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산모 면담 시 산모실까지 허용하는 대상은 배우자가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31.6%), 그 외 가족 및 친척(10.6%), 지인(9.5%)로 배우자 이외의 산모실 방문에 관해서는 다소 낮은 비율이 동의함.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접촉과 관련하여 방문객별 허용범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허용 여부는 배우자, 부모, 그 외 가족 및 친척, 지인 순으로 허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신생아와의 면회와 접촉은 지인(68.4%), 부모 외 가족 및 친척(64.2%) 순으로 허용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신생아 접촉을 허용하는 대상은 배우자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가 25.4%로 나타났고 그 외의 경우는 5.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22> 산후조리원 방문객별 허용범위에 관한 견해

(단위 : %, 명)

	산모면담					신생아 면회 및 접촉					
	허용안함	허용함			계	허용안함	허용함			계	
		면회실	산모실	소계			면회	접촉	소계		
배우자	0.6 (11)	10.4	89.6	100.0 (2,098)	99.4 (2,109)	4.1 (88)	16.8	83.2	100.0 (2,021)	95.9 (2,109)	
부모(친정, 시댁 포함)	21.5 (360)	68.4	31.6	100.0 (1,749)	78.5 (2,109)	39.4 (699)	74.6	25.4	100.0 (1,410)	60.6 (2,109)	
그 외 가족 및 친척	45.6 (843)	89.4	10.6	100.0 (1,266)	54.4 (2,109)	64.2(1236)	96.8	3.2	100.0 (873)	35.8 (2,109)	
지인	49.5 (923)	90.5	9.5	100.0 (1,186)	50.5 (2,109)	68.4(1337)	98.0	2.0	100.0 (772)	31.6 (2,109)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표23>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26.7%), 정보 공개 확대(12.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을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 25세 미만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62.7%) 다음으로 정보 공개 확대(12.8%),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11.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산후조리원 비용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0.2%) 다음으로 정보 공개 확대(14.2%),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14.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월 평균 소득 900~1,0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29.2%), 공개 확대(28.2%),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26.0%) 이 유사한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월 평균 소득 1,000만 원 이상 최고 소득 집단 산모의 경우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39.6%),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27.0%), 공개 확대(22.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3>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

(단위 : %, 명)

	감염안전관리 강화	비용지원	종사자자격 기준강화	정보공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기타	계(명)
여성 전체	26.7	48.7	4.7	12.8	6.8	0.3	100.0 (2,911)
거주지							
동부	26.8	47.8	4.9	13.4	6.8	0.3	100.0 (2,064)
읍면부	26.1	53.1	3.6	10.1	6.8	0.3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11.9	62.7	5.8	12.0	6.8	0.8	100.0 (109)
25~29세	25.3	51.0	4.9	11.7	7.0	0.2	100.0 (466)
30~34세	27.4	48.1	5.3	12.7	6.1	0.4	100.0 (1,212)
35~39세	28.8	46.5	3.9	13.3	7.3	0.2	100.0 (957)
40세 이상	22.1	51.7	2.7	14.8	8.7	0.0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15.9	69.0	2.1	6.2	6.8	0.0	100.0 (83)
고졸	20.5	61.4	2.7	8.8	6.0	0.5	100.0 (664)
대졸	27.7	46.7	4.9	13.4	7.1	0.1	100.0 (2,005)
대학원이상	35.4	30.4	7.8	19.4	5.9	1.1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27.6	42.8	4.5	16.5	8.4	0.2	100.0 (952)
비취업	26.2	51.7	4.7	11.0	6.0	0.3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4.0	50.2	8.5	14.2	13.1	0.0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18.6	68.2	0.9	7.8	4.5	0.0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23.5	55.1	3.3	9.5	8.7	0.0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27.3	49.8	4.9	10.5	6.5	1.0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28.1	46.2	5.1	12.8	7.6	0.2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26.3	45.5	5.0	19.4	3.8	0.0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31.7	39.5	6.7	16.4	5.7	0.0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38.5	41.5	0.9	15.2	3.9	0.0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26.4	29.4	7.3	21.1	15.2	0.7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26.0	29.2	8.3	28.2	8.2	0.0	100.0 (37)
1,000만 원 이상	39.5	27.0	9.7	22.0	1.7	0.0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27.4	48.2	4.3	14.1	5.8	0.1	100.0 (1,480)
둘째아 이상	25.9	49.3	5.0	11.4	8.0	0.5	100.0 (1,431)

3.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관한 사항

□ 집에서 산후조리 시 가장 도움을 준 사람[<표24>, <표25>]

-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1순위는 친정부모(4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낮)산후조리도우미(28.9%), 배우자(1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 1순위는 친정부모(4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20.8%), 시부모(17.3%)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으로 친정부모(35.8%), 배우자(24.2%), (낮)산후조리도우미(1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월 평균 가구소득 600~7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으로 친정부모(47.8%), (낮)산후조리도우미(24.0%), 시부모(1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두 번째로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2.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정부모(16.2%), 친정가족(13.0%)로 나타남.
 - 25세 미만의 산모, 고졸 이하의 산모, 월 평균 가구소득 100~200만 원 및 700~800만 원(교육수준)의 산모의 경우는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두 번째로 도움을 준 사람으로 배우자 다음으로 친정가족, 친정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대체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친정부모나 (낮)산후조리도우미가 주로 도움을 주었고 배우자가 돕는 식으로 산후조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24>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큰 도움 준 사람(1순위)

(단위 : %, 명)

	친정부 모	친정가 족	시부모	시댁가 족	산후조리 도우미 (낮)	산후조리 도우미 (24시간)	지인	배우자	없음	기타	(명)
여성 전체	47.4	2.4	6.0	0.5	28.9	1.1	0.3	13.0	0.4	0.0	100.0 (2,584)
거주지											
동부	48.3	2.3	5.6	0.5	29.2	1.2	0.3	12.2	0.4	0.0	100.0 (1,846)
읍면부	42.5	3.4	8.0	0.2	27.3	0.7	0.4	16.9	0.5	0.0	100.0 (738)
연령											
25세 미만	40.4	1.7	13.9	0.3	27.1	0.0	1.2	15.3	0.0	0.0	100.0 (97)
25~29세	47.0	4.1	7.0	1.0	22.8	0.7	0.7	16.5	0.1	0.0	100.0 (415)
30~34세	49.9	2.2	5.4	0.4	29.6	1.2	0.1	10.8	0.5	0.0	100.0 (1,085)
35~39세	46.7	2.0	4.7	0.3	30.2	1.4	0.4	14.0	0.3	0.0	100.0 (838)
40세 이상	37.4	2.1	10.9	1.3	34.0	0.0	0.5	12.2	1.3	0.4	100.0 (149)
교육수준											
중졸이하	40.1	5.5	17.3	1.1	13.0	0.0	0.0	20.8	2.3	0.0	100.0 (77)
고졸	43.0	3.4	9.4	0.6	23.1	0.5	0.9	18.9	0.3	0.0	100.0 (576)
대졸	48.5	2.4	5.4	0.4	30.3	1.2	0.2	11.3	0.4	0.0	100.0 (1,784)
대학원이상	49.5	0.0	1.4	1.2	34.2	2.0	0.0	11.7	0.0	0.0	100.0 (147)
취업여부											
취업	50.2	2.0	5.3	0.7	27.2	2.1	0.4	11.4	0.6	0.0	100.0 (846)
비취업	45.9	2.7	6.4	0.4	29.8	0.5	0.3	13.8	0.3	0.0	100.0 (1,73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5.8	0.0	13.7	1.6	17.7	0.0	2.3	24.2	4.7	0.0	100.0 (41)
100~200만 원 미만	42.5	5.6	11.0	0.0	23.0	0.0	2.9	15.0	0.0	0.0	100.0 (144)
200~300만 원 미만	48.1	1.8	6.0	0.3	27.1	0.4	0.2	16.2	0.1	0.0	100.0 (711)
300~400만 원 미만	44.3	1.3	5.3	0.6	33.1	0.7	0.1	14.0	0.6	0.0	100.0 (686)
400~500만 원 미만	51.4	3.7	6.6	0.4	26.0	1.5	0.1	9.8	0.5	0.0	100.0 (418)
500~600만 원 미만	48.2	4.3	3.7	0.0	32.6	1.0	0.4	9.7	0.1	0.0	100.0 (247)
600~700만 원 미만	47.8	3.9	11.2	1.6	24.0	2.5	0.0	7.7	1.0	0.3	100.0 (130)
700~800만 원 미만	57.2	0.0	3.2	0.0	26.4	3.1	0.0	10.2	0.0	0.0	100.0 (63)
800~900만 원 미만	46.3	4.5	2.9	5.1	32.2	0.0	0.0	9.0	0.0	0.0	100.0 (39)
900~1,000만 원 미 만	45.6	0.0	3.4	0.0	35.6	3.5	0.0	11.9	0.0	0.0	100.0 (31)
1,000만 원 이상	48.6	0.0	1.2	0.0	31.2	5.0	0.0	14.0	0.0	0.0	100.0 (74)
출생순위											
첫째아	52.6	2.8	5.7	0.4	23.7	0.8	0.5	13.3	0.1	0.0	100.0 (1,303)
둘째아 이상	41.5	2.1	6.3	0.6	34.7	1.4	0.1	12.6	0.7	0.0	100.0 (1,281)

<표 25>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큰 도움 준 사람(2순위)

(단위 : %, 명)

	친정 부모	친정 가족	시부모	시댁 가족	산후조리 도우미 (낮)	산후조리 도우미 (24시간)	지인	배우자	없음	기타	계(명)
여성 전체	16.2	13.0	7.0	1.0	8.9	0.2	1.3	52.3	0.0	0.1	100.0 (2,349)
거주지											
동부	16.4	13.0	6.7	1.0	9.1	0.2	1.0	52.4	0.0	0.2	100.0 (1,697)
읍면부	15.0	12.6	8.3	1.0	7.8	0.3	3.0	52.1	0.0	0.0	100.0 (652)
연령											
25세 미만	11.6	12.9	10.0	0.0	6.9	0.0	0.0	58.6	0.0	0.0	100.0 (87)
25~29세	17.0	13.2	7.2	1.5	7.3	0.0	2.0	51.7	0.0	0.0	100.0 (383)
30~34세	15.7	12.8	6.6	1.1	9.3	0.1	1.0	53.4	0.0	0.0	100.0 (1,000)
35~39세	16.9	13.1	7.8	0.6	9.6	0.5	1.4	49.9	0.0	0.2	100.0 (752)
40세 이상	16.0	12.4	2.4	1.1	7.2	0.0	2.6	56.7	0.0	1.5	100.0 (127)
교육수준											
중졸이하	9.5	10.0	8.7	0.0	4.9	0.0	7.7	56.2	0.0	3.0	100.0 (69)
고졸	12.9	14.7	8.3	1.8	6.7	0.0	2.8	52.5	0.0	0.3	100.0 (505)
대졸	16.7	13.0	6.5	0.8	9.2	0.3	0.9	52.6	0.0	0.0	100.0 (1,638)
대학원이상	20.3	10.0	7.8	1.3	11.4	0.0	0.7	48.5	0.0	0.0	100.0 (137)
취업여부											
취업	18.7	14.0	7.3	0.7	9.9	0.4	1.1	47.6	0.0	0.2	100.0 (773)
비취업	14.8	12.4	6.9	1.1	8.3	0.1	1.4	54.8	0.0	0.1	100.0 (1,576)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4.2	7.6	8.9	9.9	2.3	0.0	8.2	48.9	0.0	0.0	100.0 (31)
100~200만 원 미만	8.9	19.7	10.1	0.8	6.5	0.0	1.8	51.4	0.0	1.0	100.0 (126)
200~300만 원 미만	13.4	12.7	7.2	1.0	9.4	0.0	2.5	53.9	0.0	0.0	100.0 (634)
300~400만 원 미만	16.4	13.4	7.6	0.3	9.5	0.3	0.5	51.9	0.0	0.1	100.0 (633)
400~500만 원 미만	16.8	10.8	5.7	1.0	9.9	0.8	1.0	53.8	0.0	0.2	100.0 (392)
500~600만 원 미만	19.0	11.7	7.9	2.4	6.1	0.0	1.1	51.8	0.0	0.0	100.0 (227)
600~700만 원 미만	19.7	15.0	3.8	0.0	7.2	0.0	1.1	53.2	0.0	0.0	100.0 (119)
700~800만 원 미만	13.6	16.4	6.6	1.0	6.2	0.0	2.1	54.2	0.0	0.0	100.0 (58)
800~900만 원 미만	21.3	8.1	5.2	0.0	2.7	0.0	0.0	62.7	0.0	0.0	100.0 (35)
900~1,000만 원 미만	21.9	6.9	14.1	0.0	11.6	0.0	0.0	44.1	0.0	1.5	100.0 (29)
1,000만 원 이상	25.7	15.3	3.0	1.9	17.0	0.0	0.4	36.7	0.0	0.0	100.0 (65)
출생순위											
첫째아	15.3	14.3	5.9	1.4	9.2	0.1	1.1	52.7	0.0	0.0	100.0 (1,199)
둘째아 이상	17.2	11.4	8.3	0.5	8.5	0.3	1.6	51.8	0.0	0.3	100.0 (1,150)

□ 집에서 산후조리 시 지불한 비용<표26>

- 집에서 산후조리 시 지출한 평균 비용은 95만 8천원으로 나타남.
 - (거주지)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평균 지출 비용은 읍면부 거주 산모보다 평균 22만 7천원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지출한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집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지출한 평균 비용이 증가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800~900만 원 미만 산모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집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지출한 평균 비용이 증가함.
 - (출생순위)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보다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지출한 평균 비용 높게 나타남.

- 산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는 가구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집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지출한 비용이 높은 것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 산모의 산후조리 외에 다른 자녀의 돌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26> 산후조리장소(집)의 평균 비용

(단위 : 만원, 명)

	평균 비용	계
여성 전체	95.8	2,584
거주지		
동부	99.9	1,846
읍면부	75.1	738
연령		
25세 미만	75.2	97
25~29세	69.9	415
30~34세	96.6	1,085
35~39세	105.9	838
40~44세	116.7	149
교육수준		
중졸이하	53.7	77
고졸	61.2	576
대졸	99.5	1,784
대학원이상	153.9	147
취업여부		
취업	106.9	846
비취업	90.0	1,73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5.0	41
100~200만 원 미만	65.9	144
200~300만 원 미만	65.8	711
300~400만 원 미만	94.0	686
400~500만 원 미만	102.8	418
500~600만 원 미만	105.4	247
600~700만 원 미만	125.6	130
700~800만 원 미만	146.1	63
800~900만 원 미만	113.3	39
900~1,000만 원 미만	176.7	31
1,000만 원 이상	195.3	74
출생순위		
첫째아	90.4	1,303
둘째아 이상	101.8	1,281

□ 집에서 산후조리 시의 교육 항목별 필요도 및 경험률[<표27>]

-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필요했던 교육과 실제 받은 교육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64.3%), 신생아 안전 교육(63.5%), 모유수유 교육(63.4%), 산모건강관리 교육(62.0%)임.
 - 실제로 가장 많은 산모가 받은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50.4%)이었으며, 다음으로 모유수유 교육(43.2%), 산모건강관리 교육(34.8%), 신생아 안전 교육(31.3%), 산모 안전 교육(1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필요도와 실제 경험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교육은 신생아 안전교육으로 필요도와 실제 경험률의 차이가 32.2%p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산모 안전 교육(30.3%p), 산모 건강관리 교육(27.2%p), 모유수유 교육(20.2%p) 순으로 나타남.

-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 산후조리 시의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실제 받은 교육의 경험률을 산모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에 비해 신생아의 돌봄, 안전, 모유수유 등 신생아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는 산모의 건강관리, 성생활 및 피임방법, 산모 안전 등 산모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성생활 및 피임방법 교육 방법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의 경험률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경험률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산모의 경우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필요도가 다른 산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출생순위) 첫째아 출산의 경우는 모든 교육 항목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표 27>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교육 항목별 필요도 및 경험률

(단위 : %, 점, 명)

	산모 건강관리		성생활 피임방법		신생아 돌봄		신생아 안전		산모 안전		모유수유		계(명)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필요율	경험률	
여성 전체	62.0	34.8	28.3	10.6	64.3	50.4	63.5	31.3	45.1	14.8	63.4	43.2	2,584
거주지													
동부	61.8	35.0	26.8	10.4	64.3	51.0	63.6	32.3	44.7	15.2	63.6	43.8	1,846
읍면부	63.1	33.8	35.9	11.2	64.2	47.6	62.9	26.6	47.0	13.0	62.6	40.7	738
연령													
25세 미만	75.9	37.8	49.2	12.0	75.0	45.6	79.3	33.8	64.3	17.6	80.9	44.2	97
25~29세	65.3	34.5	30.9	10.8	69.1	52.4	67.5	29.6	48.6	14.5	67.0	40.5	415
30~34세	61.2	36.4	27.7	9.8	66.6	53.7	64.3	33.0	45.2	14.6	65.2	45.3	1,085
35~39세	60.0	34.2	27.0	11.6	58.8	46.9	59.1	30.2	41.7	15.9	58.6	43.1	838
40세 이상	61.9	25.4	20.3	9.2	57.6	43.0	61.9	28.6	41.7	9.7	57.3	35.9	149
교육수준													
중졸이하	72.3	22.3	40.7	11.0	78.0	42.6	79.6	27.7	55.0	11.0	70.8	30.4	77
고졸	62.7	31.6	33.4	12.2	65.6	49.3	63.5	28.4	48.5	15.6	65.6	42.1	576
대졸	61.7	36.2	27.7	10.5	64.0	50.9	63.7	32.1	44.9	14.7	63.0	43.8	1,784
대학원이상	60.5	33.2	18.8	6.9	60.4	50.3	58.8	32.4	36.8	14.4	60.4	43.8	147
취업여부													
취업	60.1	33.4	24.5	8.8	62.2	48.1	60.8	29.6	44.1	15.1	61.9	40.3	846
비취업	63.0	35.6	30.3	11.5	65.4	51.6	64.9	32.2	45.6	14.7	64.3	44.8	1,738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7.1	17.6	29.9	8.3	69.4	29.6	71.7	17.6	42.5	4.9	74.4	30.4	41
100~200만 원 미만	67.0	32.1	36.0	10.2	70.5	51.2	70.5	31.0	52.5	13.0	69.1	46.6	144
200~300만 원 미만	66.0	34.9	33.1	13.1	66.1	50.8	67.7	30.2	45.8	15.0	64.7	43.1	711
300~400만 원 미만	58.5	33.4	25.8	9.2	64.8	53.9	62.9	31.8	46.9	13.3	64.3	46.9	686
400~500만 원 미만	61.2	42.2	26.3	11.1	61.1	50.8	59.4	34.2	38.8	17.0	59.6	44.8	418
500~600만 원 미만	59.2	34.5	27.6	11.2	61.9	51.2	60.6	36.0	45.7	17.9	59.2	41.3	247
600~700만 원 미만	56.3	32.8	24.8	7.2	64.5	42.8	61.2	30.4	44.1	16.0	62.7	33.8	130
700~800만 원 미만	58.6	40.9	26.3	9.0	61.1	44.7	64.4	30.1	48.0	14.9	64.8	48.2	63
800~900만 원 미만	78.2	29.4	21.2	2.8	76.2	57.3	68.0	21.1	38.5	6.8	75.4	47.3	39
900~1,000만 원 미만	64.2	27.0	30.9	19.3	60.9	43.4	61.0	32.9	43.8	17.8	71.0	40.0	31
1,000만 원 이상	66.2	28.0	20.9	5.7	54.3	40.3	53.5	21.2	45.2	12.3	56.4	27.0	74
출생순위													
첫째아	67.0	35.6	30.5	10.0	72.0	54.9	69.2	33.4	49.1	15.5	70.8	46.7	1,303
둘째아 이상	56.5	34.0	25.8	11.1	55.6	45.4	57.1	29.0	40.6	14.0	55.2	39.4	1,281

□ 집에서 산후조리 시 받은 교육 항목별 도움 정도<표28>

-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를 1점(전혀 도움 안 됨)~5점(매우 도움 됨)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4.1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생아 안전 교육(4.0점)과 모유수유 교육(4.0점)이 높게 나타남.
 - 신생아 돌봄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3.9~4.2점으로 편차가 크지 않고 대체로 모든 산모 집단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평가됨.

□ 집에서 산후조리 시 교육에 도움을 준 사람(수단)<표29>, <표30>

-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이루어진 교육에 도움을 준 사람(1순위)은 (낮)산후조리도우미(35.8%), 친정부모(32.5%), 대중매체(14.2%) 순으로 나타남.
 - (친정부모) 친정부모가 가장 교육에 도움을 준 경우는 25~29세 미만 산모인 경우, 고졸 이하의 산모인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 100~300만 원 미만과 월 평균 가구소득 700~800만 원 미만인 산모의 경우,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로 나타남.
 - (시부모)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에 속한 산모의 경우는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이루어진 교육에 도움을 준 사람(1순위)으로 (낮)산후조리도우미(46.0%) 다음으로 시부모가 18.7%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대중매체) 월 평균 가구소득 900~10,0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교육에 도움을 준 수단(사람)은 대중매체(45.0%)로 나타남. 월 평균 가구소득 800~9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교육에 도움을 준 사람(1순위)으로 (낮)산후조리도우미(45.8%) 다음으로 대중매체가 22.5%로 높게 나타남.
-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교육에 도움을 준 사람

(수단)(2순위)으로는 대중매체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육아서적(23.0%), 친정부모(1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8> 집에서 산후조리 시 교육내용별 도움 정도

(단위 : 점)

	산모 건강관리	성생활 피임방법	신생아 돌봄	신생아 안전	산모 안전	모유수유
여성 전체	3.9	3.7	4.1	4.0	3.9	4.0
거주지						
동부	3.9	3.8	4.1	4.0	4.0	4.0
읍면부	3.9	3.6	4.1	3.9	3.7	4.0
연령						
25세 미만	3.9	4.1	4.0	4.0	4.3	4.1
25~29세	4.0	3.9	4.1	4.0	4.0	4.0
30~34세	3.9	3.8	4.1	4.0	3.9	4.0
35~39세	3.8	3.6	4.1	4.0	3.9	4.0
40세 이상	4.0	3.6	4.1	4.1	4.1	4.0
교육수준						
중졸이하	3.8	3.3	3.9	3.8	4.0	3.9
고졸	3.8	3.3	4.0	3.9	3.9	3.9
대졸	3.9	3.9	4.1	4.0	4.0	4.0
대학원이상	3.8	3.4	4.1	3.8	3.8	3.9
취업여부						
취업	4.0	3.8	4.2	4.1	4.1	4.1
비취업	3.8	3.7	4.1	4.0	3.9	4.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5	2.7	4.0	3.8	4.0	3.3
100~200만 원 미만	3.9	3.5	4.0	4.0	4.1	4.1
200~300만 원 미만	3.8	3.7	4.1	4.1	4.0	4.0
300~400만 원 미만	3.9	3.9	4.2	4.0	4.0	4.0
400~500만 원 미만	3.8	3.6	4.0	4.0	3.8	4.0
500~600만 원 미만	3.9	3.8	4.2	4.0	4.0	4.1
600~700만 원 미만	3.9	4.4	4.2	4.0	4.1	4.1
700~800만 원 미만	3.9	3.3	4.0	3.7	3.8	3.7
800~900만 원 미만	4.0	2.8	4.0	4.0	4.6	4.0
900~1,000만 원 미만	3.8	3.4	4.0	3.7	3.4	3.6
1,000만 원 이상	4.2	4.1	4.1	4.1	4.2	4.2
출생순위						
첫째아	3.9	3.8	4.1	4.0	3.9	4.0
둘째아 이상	3.8	3.7	4.1	4.0	4.0	4.0

<표 29>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교육에 도움 준 사람 및 수단(1순위)

(단위 : %, 명)

	친정 부모	친정 가족	시부모	시댁 가족	산후조리도우미 (낮)	산후조리도우미 (24시간)	배우자	대중매체	육아서적	기타	계(명)
여성 전체	32.5	2.4	3.1	0.7	35.8	1.4	1.5	14.2	6.3	2.2	100.0 (1,530)
거주지											
동부	32.4	2.2	2.7	0.7	36.4	1.4	1.4	13.9	6.2	2.5	100.0 (1,122)
읍면부	33.0	3.2	5.1	0.6	32.8	1.4	1.5	15.7	6.5	0.3	100.0 (408)
연령											
25세 미만	23.9	4.2	9.2	0.0	35.4	0.0	2.0	14.1	3.2	8.0	100.0 (58)
25~29세	39.0	4.2	4.6	0.3	24.0	2.2	1.8	18.3	4.1	1.6	100.0 (253)
30~34세	32.7	2.0	2.3	1.4	37.8	1.1	1.7	12.7	6.0	2.3	100.0 (676)
35~39세	31.1	2.0	2.2	0.0	38.4	1.6	0.9	14.4	7.5	1.9	100.0 (470)
40세 이상	24.2	1.4	6.3	0.0	41.4	0.8	0.8	13.3	10.5	1.4	100.0 (73)
교육수준											
중졸이하	42.8	13.1	7.3	0.0	19.7	0.0	1.8	15.2	0.0	0.0	100.0 (37)
고졸	31.8	1.9	4.6	0.7	29.4	1.0	1.7	16.8	7.4	4.7	100.0 (315)
대졸	32.8	2.3	2.8	0.5	37.0	1.5	1.4	13.8	6.5	1.6	100.0 (1,092)
대학원이상	30.0	2.1	1.1	2.1	44.1	1.5	1.5	12.2	3.4	2.1	100.0 (86)
취업여부											
취업	30.9	2.9	2.9	1.2	37.0	2.0	0.7	12.8	6.7	2.9	100.0 (487)
비취업	33.3	2.1	3.2	0.4	35.3	1.1	1.8	14.9	6.1	1.8	100.0 (1,043)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5.3	0.0	18.7	7.0	46.0	0.0	0.0	10.6	2.4	0.0	100.0 (16)
100~200만 원 미만	43.0	8.0	1.6	1.9	26.0	0.3	1.4	15.1	2.6	0.0	100.0 (81)
200~300만 원 미만	35.1	1.6	4.4	0.3	32.4	0.7	2.0	16.1	5.3	2.1	100.0 (415)
300~400만 원 미만	30.1	1.5	2.3	0.4	39.4	1.0	1.0	13.1	8.3	2.9	100.0 (430)
400~500만 원 미만	31.3	1.6	3.3	0.0	36.9	3.2	1.4	13.5	6.6	2.1	100.0 (253)
500~600만 원 미만	33.1	5.9	1.1	1.3	35.3	1.6	2.0	11.7	6.1	1.9	100.0 (149)
600~700만 원 미만	32.2	2.9	3.7	3.5	37.2	1.6	2.6	11.3	1.9	3.0	100.0 (70)
700~800만 원 미만	44.7	0.0	0.0	0.0	30.8	0.0	0.0	4.7	13.5	6.3	100.0 (39)
800~900만 원 미만	15.5	1.6	3.5	0.0	45.8	2.2	1.2	22.5	7.7	0.0	100.0 (25)
900~1,000만 원 미만	15.6	0.0	8.5	0.0	17.4	6.2	0.0	45.0	7.4	0.0	100.0 (17)
1,000만 원 이상	30.2	2.7	2.3	0.0	51.0	0.0	0.0	12.9	0.9	0.0	100.0 (35)
출생순위											
첫째아	39.3	2.8	3.4	1.0	29.5	1.6	2.1	12.4	5.3	2.6	100.0 (842)
둘째아 이상	23.7	1.8	2.7	0.2	44.2	1.1	0.5	16.6	7.6	1.7	100.0 (688)

<표 30>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신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교육에 도움 준 사람 및 수단(2순위)
(단위 : %, 명)

	친정 부모	친정 가족	시부모	시댁 가족	산후조리도우미(낮)	산후조리도우미(24시간)	배우자	대중매체	육아서적	기타	계(명)
여성 전체	17.9	6.9	4.5	0.9	8.1	0.3	6.7	29.6	23.0	2.0	100.0 (1,429)
거주지											
동부	18.1	6.1	4.5	0.7	7.8	0.4	6.4	30.9	23.1	2.1	100.0 (1,039)
읍면부	17.3	11.1	4.6	1.8	9.5	0.0	8.5	23.0	22.6	1.6	100.0 (390)
연령											
25세 미만	10.5	4.0	8.8	1.4	6.4	0.0	20.7	18.1	30.1	0.0	100.0 (52)
25~29세	16.2	10.2	5.7	0.2	5.0	0.0	5.8	32.8	20.4	3.8	100.0 (236)
30~34세	20.0	4.4	5.2	1.1	9.9	0.2	5.9	30.8	21.2	1.3	100.0 (630)
35~39세	17.0	9.2	2.8	1.0	7.4	0.7	6.9	26.6	26.0	2.3	100.0 (444)
40세 이상	14.5	6.2	2.5	1.1	7.4	0.0	7.5	34.8	24.2	1.7	100.0 (67)
교육수준											
중졸이하	11.8	4.7	17.2	4.3	0.0	0.0	15.8	24.9	21.2	0.0	100.0 (35)
고졸	11.5	10.1	7.0	1.8	4.5	0.0	11.6	28.4	23.0	2.2	100.0 (293)
대졸	19.8	6.1	3.3	0.4	8.9	0.4	4.9	30.3	23.6	2.2	100.0 (1,022)
대학원이상	17.8	6.7	7.0	2.4	11.1	0.0	9.9	27.1	18.1	0.0	100.0 (79)
취업여부											
취업	18.9	5.3	5.3	0.2	8.2	0.9	4.4	30.7	25.2	0.8	100.0 (459)
비취업	17.5	7.7	4.1	1.3	8.1	0.0	7.8	29.1	21.9	2.6	100.0 (97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6.1	4.8	4.5	2.8	0.0	0.0	5.6	13.4	29.2	13.6	100.0 (15)
100~200만 원 미만	6.2	15.6	6.8	0.0	7.3	0.0	10.9	32.3	20.8	0.0	100.0 (71)
200~300만 원 미만	11.5	8.3	5.1	1.0	8.6	0.0	9.2	31.2	21.9	3.1	100.0 (389)
300~400만 원 미만	20.2	6.2	3.3	0.6	8.5	0.0	5.6	31.0	23.7	0.9	100.0 (400)
400~500만 원 미만	23.6	7.9	3.4	0.9	8.3	1.4	5.3	23.7	24.4	1.1	100.0 (238)
500~600만 원 미만	27.3	3.6	4.0	2.4	2.9	0.7	3.1	27.9	23.9	4.2	100.0 (143)
600~700만 원 미만	18.8	4.4	8.1	1.8	13.2	0.0	0.7	30.5	22.5	0.0	100.0 (65)
700~800만 원 미만	18.8	5.9	6.3	0.0	0.0	0.0	13.4	36.1	17.8	1.6	100.0 (36)
800~900만 원 미만	7.4	1.0	16.7	0.0	16.4	0.0	3.6	29.7	21.2	4.0	100.0 (24)
900~1,000만 원 미만	11.1	6.6	0.0	0.0	11.1	0.0	4.4	32.5	28.4	5.8	100.0 (16)
1,000만 원 이상	14.2	2.3	0.0	0.0	14.4	0.0	17.8	31.5	19.8	0.0	100.0 (32)
출생순위											
첫째아	18.4	8.4	4.8	1.3	7.4	0.1	6.6	30.0	20.0	2.9	100.0 (780)
둘째아 이상	17.3	5.0	4.2	0.5	9.0	0.5	6.9	29.1	26.8	0.8	100.0 (649)

□ 집에서의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표31>

- 집(본인집, 친정,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지원(64.0%)로 나타남
 -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6.0%), 육아정보 제공(11.3%)이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남.

- 집(본인집, 친정,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산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서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육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1.7%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에 비해 2.3%p 높게 나타남. 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경우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2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7.1%p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7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800~900만 원인 경우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지원(63.1%, 68.9%) 다음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15.7%, 10.8%), 육아정보 제공(14.9%, 10.1%)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월 평균 가구소득이 700~8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1,000만 원 이상인 산모의 경우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다음으로 육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17.9%, 11.9%).
 - (출생순위)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육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1%로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에 비해 6.0%p 높게 나타남.

<표 31> 집에서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

(단위 : %, 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방문간호서비 스 제공	육아정보제공	가사육아도우미 지원	기타*	계(명)	
여성 전체	16.0	8.4	11.3	64.0	0.3	100.0	(2,911)
거주지							
동부	14.8	8.7	11.7	64.5	0.3	100.0	(2,064)
읍면부	21.9	6.7	9.4	61.7	0.4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17.3	10.0	17.1	55.2	0.4	100.0	(109)
25~29세	16.9	9.1	12.2	61.8	0.0	100.0	(466)
30~34세	14.4	8.6	10.5	66.1	0.4	100.0	(1,212)
35~39세	17.3	8.1	10.9	63.5	0.3	100.0	(957)
40세 이상	17.4	5.4	13.9	62.9	0.3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18.7	8.2	13.9	59.3	0.0	100.0	(83)
고졸	19.6	7.9	12.4	60.1	0.0	100.0	(664)
대졸	14.9	9.1	11.1	64.5	0.4	100.0	(2,005)
대학원이상	16.1	3.0	10.2	70.1	0.6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14.6	9.6	9.6	65.6	0.6	100.0	(952)
비취업	16.7	7.8	12.2	63.2	0.1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9.3	5.8	15.5	49.4	0.0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18.3	9.3	12.0	60.2	0.2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19.5	8.9	14.5	57.1	0.0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16.4	8.1	8.2	66.9	0.4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15.6	9.5	8.1	66.5	0.3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15.9	5.3	12.1	66.4	0.3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5.6	15.7	14.9	63.1	0.6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13.0	0.3	17.9	68.7	0.0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9.4	10.8	10.1	68.9	0.7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11.2	5.5	6.3	74.3	2.7	100.0	(37)
1,000만 원 이상	7.7	4.3	11.9	76.1	0.0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18.2	9.0	14.1	58.3	0.3	100.0	(1,480)
둘째아 이상	13.5	7.7	8.1	70.4	0.3	100.0	(1,431)

4. 산모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모의 건강상태(<표25>, <표26>)

- 산모의 임신 기간, 산후조리 기간(출산 후 6주), 현재(최근 일주일)의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음.
 - 임신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좋음+매우 좋음) 생각하는 비율은 55.5%로 나타남.
 - 산후조리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좋음+매우 좋음) 생각하는 비율은 41.5%로 나타남.
 -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좋음+매우 좋음) 생각하는 비율은 45.2%로 나타남.

<표 32> 산모의 건강상태

(단위 : %, 명)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계(명)
임신 기간	2.7	12.7	29.0	39.6	15.9	100.0(2,911)
산후조리 기간(출산 후 6주)	5.2	18.7	34.7	32.4	9.1	100.0(2,911)
현재(최근 일주일)	4.1	16.7	34.1	33.8	11.4	100.0(2,911)

- 실제로 산후조리 기간에 질병으로 진료를 경험한 산모는 전체의 31.1%로 나타났으며, 진료의 이유로는 유선염(18.1%,)수술부위 통증(12.4%), 관절염(10.4%)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 산후조리 동안 산후진찰 외의 진료 경험

(단위 : %, 명)

	경험 있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명)
	기저 질환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유선염	유두 열상	회음부 열상	수술 부위 통증	빈혈	방광염	관절염	치질	기타			
전체	9.3	8.1	4.9	18.1	3.2	8.9	12.4	9.9	8.6	10.4	5.9	30.9	31.1(914)	68.9(1,997)	100.0(2,911)

□ 산후 수진 경험(<표34>)

- 산후 기간(출산 후 6주)에 진찰을 받은 여성은 94.6%로 나타남.
 - 산후 진찰을 받은 시기는 출산 후 1주 이내부터 6주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출산 후 1주 이내(40.1%), 출산 후 4주 이상~6주 이내(36.0%), 출산 후 1주 이상~2주 이내(33.9%)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 진찰 경험률(산후 수진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서 거주하는 산모(94.7%)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후 수진율은 94.2%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의 산후 수진율은 88.3%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산모의 산후 수진율은 84.8%로 매우 낮게 나타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 산모의 산후 수진율은 88.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의 출산인 경우 산후 수진율은 93.7%로 첫째아 출산인 경우에 비해 1.8%p 낮게 나타남.

<표34>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 수진율

(단위 : %, 명)

	진찰시기(중복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명)
	1	2	3	4	5			
여성 전체	40.1	33.9	14.1	30.2	36.0	94.6 (2,730)	5.4 (181)	100.0 (2,911)
거주지								
동부	40.2	33.7	14.4	29.6	36.6	94.7 (1,937)	5.3 (127)	100.0 (2,064)
읍면부	39.4	34.7	12.7	33.1	33.4	94.2 (793)	5.8 (54)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34.2	35.3	11.1	32.3	41.7	88.3 (94)	11.7 (15)	100.0 (109)
25~29세	35.4	31.3	10.7	29.1	39.8	94.8 (436)	5.2 (30)	100.0 (466)
30~34세	44.7	33.6	15.4	27.2	34.7	95.6 (1,146)	4.4 (66)	100.0 (1,212)
35~39세	37.0	35.0	13.8	33.4	36.6	94.1 (898)	5.9 (59)	100.0 (957)
40세 이상	39.3	35.8	16.3	36.6	29.8	94.3 (156)	5.7 (11)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32.4	43.0	16.9	26.9	29.4	84.8 (68)	15.2 (15)	100.0 (83)
고졸	38.7	32.6	14.6	30.3	32.3	91.3 (604)	8.7 (60)	100.0 (664)
대졸	40.8	33.2	13.5	30.4	36.3	95.5 (1,904)	4.5 (101)	100.0 (2,005)
대학원이상	38.5	41.2	16.9	29.2	44.0	97.1 (154)	2.9 (5)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40.4	37.1	16.0	28.6	37.5	94.7 (893)	5.3 (59)	100.0 (952)
비취업	39.9	32.3	13.1	31.0	35.3	94.6 (1,837)	5.4 (122)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2.7	40.5	21.4	28.3	32.2	96.7 (45)	3.3 (3)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36.1	31.5	11.6	32.9	24.6	88.3 (140)	11.7 (16)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38.6	33.8	12.9	30.3	34.7	94.9 (753)	5.1 (49)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38.5	32.7	13.3	31.7	35.9	93.7 (716)	6.3 (57)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43.0	32.4	13.0	26.1	38.3	95.0 (435)	5.0 (29)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38.5	36.8	12.1	29.1	34.7	97.3 (271)	2.7 (9)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39.4	36.2	24.4	38.9	39.7	98.1 (147)	1.9 (4)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52.4	33.6	5.6	19.8	53.2	94.4 (70)	5.6 (4)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45.3	46.2	26.7	39.8	27.5	98.5 (39)	1.5 (1)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51.5	17.3	17.5	33.8	33.2	94.1 (34)	5.9 (3)	100.0 (37)
1,000만 원 이상	45.9	40.9	19.4	23.2	43.4	91.5 (80)	8.5 (6)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41.1	34.1	15.4	30.4	36.2	95.5 (1,399)	4.5 (81)	100.0 (1,480)
둘째아 이상	38.9	33.7	12.5	29.9	35.9	93.7 (1,331)	6.3 (100)	100.0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41.0	34.8	12.4	29.9	35.8	94.9 (1,413)	5.1 (93)	100.0 (1,506)
제왕절개	39.0	32.9	15.9	30.6	36.3	94.4 (1,317)	5.6 (88)	100.0 (1,405)

주: **1** 출산 후 1주 이내, **2** 출산 후 1주 이상~2주 이내, **3** 출산 후 2주 이상~3주 이내, **4** 출산 후 3주 이상~4주 이내, **5** 출산 후 4주 이상~6주 이내

□ 산후우울감 경험(<표35>)

- 조사 대상 산모 중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0.3%로 높게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감 경험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동부에서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51.2%)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보다 5.4%p 높게 산후우울감을 경험함.
 - (연령) 34세 미만 산모의 50% 이상이 산후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34세 산모의 53.2%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하여 전체 연령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중졸 이하 산모를 제외하고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고졸 산모의 경우 52.5%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하여 전체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생순위)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의 산후우울감 경험률은 53.5%로, 둘째아 이상의 출산인 경우보다 6.8%p 높게 나타남.

□ 산후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표36>)

-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은 친구(44.1%),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6.2%) 순으로 나타남.
 - 의료인(3.8%)이나 보건소 간호사(0.3%)는 매우 낮게 나타남.
 - 도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2.0%로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 중 도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로 높게 나타남. 40세 이상 산모의 경우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

움을 준 사람으로 친구(46.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고졸 이하의 산모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산모와 비교해서 도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중졸 이하 26.5%, 고졸 이하 29.0%) 나타남.

<표 35>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 비율

(단위 : %, 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명)	
여성 전체	50.3	49.7	100.0	(2,911)
거주지				
동부	51.2	48.8	100.0	(2,064)
읍면부	45.8	54.2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52.3	47.7	100.0	(109)
25~29세	50.5	49.5	100.0	(466)
30~34세	53.2	46.8	100.0	(1,212)
35~39세	47.0	53.0	100.0	(957)
40세 이상	45.9	54.1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34.0	66.0	100.0	(83)
고졸	52.5	47.5	100.0	(664)
대졸	50.1	49.9	100.0	(2,005)
대학원이상	49.2	50.8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49.3	50.7	100.0	(952)
비취업	50.8	49.2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9.1	60.9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57.4	42.6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51.8	48.2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52.6	47.4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46.9	53.1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46.1	53.9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45.9	54.1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67.3	32.7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59.1	40.9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47.7	52.3	100.0	(37)
1,000만 원 이상	36.0	64.0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53.5	46.5	100.0	(1,480)
둘째아 이상	46.7	53.3	100.0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48.9	51.1	100.0	(1,506)
제왕절개	51.7	48.3	100.0	(1,405)

<표 36>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중복응답)

(단위 : %, 명)

	의료인	배우자	가족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건소 간호사	조산사	친구	도움받은 적 없음	기타	계(명)
여성 전체	3.8	51.5	26.2	2.0	0.3	0.1	44.1	22.0	1.1	1,458
거주지										
동부	3.6	51.1	25.6	1.9	0.3	0.1	44.2	22.1	1.2	1,078
읍면부	4.7	53.1	29.4	2.6	0.2	0.0	43.1	21.6	0.8	380
연령										
25세 미만	6.2	40.0	15.8	0.0	0.0	0.0	31.5	34.7	6.9	53
25~29세	7.6	50.0	28.7	2.9	0.0	0.0	42.7	22.8	0.4	237
30~34세	3.4	57.0	23.8	2.0	0.6	0.0	44.1	19.3	0.7	639
35~39세	1.9	48.5	29.6	1.7	0.1	0.2	45.7	23.4	1.7	449
40세 이상	4.5	33.3	26.6	2.8	0.6	0.0	46.8	25.8	0.0	80
교육수준										
중졸이하	5.1	50.4	16.2	0.0	0.0	0.0	30.6	26.5	0.0	27
고졸	6.1	45.0	24.2	0.8	0.3	0.3	37.3	29.0	1.2	347
대졸	2.9	53.1	27.5	2.3	0.0	0.0	45.9	19.8	0.8	1,003
대학원이상	5.2	54.4	21.9	2.6	3.1	0.0	47.7	22.2	4.1	81
취업여부										
취업	4.3	48.4	27.9	3.8	0.8	0.0	46.7	22.7	1.5	466
비취업	3.5	52.9	25.4	1.1	0.1	0.1	42.8	21.6	0.9	992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8	50.0	9.9	0.0	0.0	0.0	35.6	24.7	0.0	20
100~200만 원 미만	10.3	46.2	26.9	1.1	0.0	0.0	31.4	26.4	0.0	82
200~300만 원 미만	3.9	50.1	25.4	1.9	0.3	0.0	42.6	24.6	1.2	405
300~400만 원 미만	2.5	53.2	22.0	1.7	0.0	0.2	46.9	22.0	0.9	411
400~500만 원 미만	3.1	54.4	32.4	2.2	0.5	0.0	41.8	18.5	0.1	218
500~600만 원 미만	1.8	50.1	25.7	1.0	0.0	0.0	44.9	25.4	0.0	132
600~700만 원 미만	4.0	56.7	32.5	5.9	0.0	0.0	48.3	16.5	2.3	72
700~800만 원 미만	7.5	45.0	25.8	4.2	4.8	0.0	44.7	19.8	6.5	41
800~900만 원 미만	0.0	23.9	20.1	2.6	0.0	0.0	61.2	22.3	8.5	22
900~1,000만 원 미만	4.9	62.0	40.4	0.0	0.0	0.0	36.5	17.5	0.0	19
1,000만 원 이상	9.1	57.1	32.4	0.0	0.0	0.0	53.9	10.0	0.0	36
출생순위										
첫째아	3.9	55.5	27.5	2.9	0.4	0.1	44.8	18.8	1.3	785
둘째아 이상	3.6	46.2	24.6	0.9	0.2	0.0	43.1	26.1	0.9	673

□ 산후 우울 상태(<표37>)

○ 출산 후 1년 내외의 산모를 대상으로 현재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의 에딘버러 검사(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실시함.

※ 에딘버러 검사는 1987년 Cox등이 개발한 자기기입식 산후우울증 선별도구로 한글판이 보급되어 산후우울증 선별을 위해 널리 활용됨.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별 0~3점으로 이루어져 0~30점까지 도출되어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총점이 10점 미만일 경우 비우울군, 10~12점인 경우 경도우울군(minor depression), 13점 이상인 경우 주요우울군(major depression)으로 분류됨(Kim 등, 2005; Cox 등, 1987).

○ 최근 일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에딘버러검사 결과 점수가 10점 이상인 산후우울 위험군은 33.9%로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연령) 25세 미만의 산모의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은 39.1%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고졸 이하 산모의 39.6~40.6%가 산후우울 위험군으로 대학 재학 이상의 산모(28.3~32.6%)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중졸 이하의 산모는 평균점수가 9.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 비취업 산모는 취업 산모(30.4%)보다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이 5.4%p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산모의 51.4%가 산후우울 위험군이었으며 에딘버러검사 결과 평균 점수가 9.8점으로 높게 나타남.

-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는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이 36.8%로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 비해 5.4%p높게 나타남.

- (분만방법) 제왕절개한 산모(34.2%)는 자연분만한 산모(33.7%)보다 산후우울 위험군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7> 에딘버러 검사 점수¹⁾ 및 우울 위험군²⁾ 비율

(단위 : 점, %, 명)

	평균 점수	우울위험군	비위험군	계(명)	
여성 전체	8.3	33.9	66.1	100.0	(2,911)
거주지					
동부	8.3	33.9	66.1	100.0	(2,064)
읍면부	8.3	34.1	65.9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9.3	39.1	60.9	100.0	(109)
25~29세	8.2	33.7	66.3	100.0	(466)
30~34세	8.3	34.2	65.8	100.0	(1,212)
35~39세	8.3	33.7	66.3	100.0	(957)
40세 이상	7.7	31.4	68.6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9.7	39.6	60.4	100.0	(83)
고졸	9.3	40.6	59.4	100.0	(664)
대졸	8.0	32.6	67.4	100.0	(2,005)
대학원이상	7.3	28.3	71.7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7.9	30.4	69.6	100.0	(952)
비취업	8.5	35.8	64.2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9.8	51.4	48.6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9.1	39.9	60.1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8.6	35.9	64.1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8.4	35.3	64.7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8.0	31.5	68.5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8.0	32.5	67.5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7.7	26.2	73.8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7.4	23.0	77.0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7.7	29.2	70.8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8.4	41.1	58.9	100.0	(37)
1,000만 원 이상	7.1	30.8	69.2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8.0	31.4	68.6	100.0	(1,480)
둘째아 이상	8.5	36.8	63.2	100.0	(1,431)
분만방법					
자연분만	8.1	33.7	66.3	1,506	
제왕절개	8.4	34.2	65.8	1,405	

1) - 1번, 2번, 4번: ①-0점, ②-1점, ③-2점, ④-3점
 - 3번, 5~10번 : ①-3점, ②-2점, ③-1점, ④-0점
 - 위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계산

2) 10점 이상인 경우

□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표38>)

-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료 산후진찰 지원(37.7%)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32.8%), 산모 건강관리 방법 교육(2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 읍면부에서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은 산모 건강관리 방법 교육(29.2%)로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보다 2.4%p 높게 나타남. 반면, 동부에서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은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33.8%)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보다 5.5%p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대학원 이상 산모의 경우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산모 건강관리 방법 교육(37.3%), 무료 산후진찰(32.8%),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25.1%) 순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산모의 경우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43.1%), 산모 건강관리 방법 교육(37.8%), 무료 산후진찰(19.1%) 순으로 응답함.

<표 38>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

(단위 : %, 명)

	무료 산후진찰	산후우울 상담치료	건강관리 방법 교육	기타	계(명)
여성 전체	37.7	32.8	27.2	2.3	100.0 (2,911)
거주지					
동부	37.2	33.8	26.8	2.2	100.0 (2,064)
읍면부	40.0	28.3	29.2	2.5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38.3	31.5	27.4	2.9	100.0 (109)
25~29세	40.9	32.9	24.1	2.0	100.0 (466)
30~34세	36.1	34.5	27.3	2.2	100.0 (1,212)
35~39세	37.7	30.9	29.2	2.2	100.0 (957)
40세 이상	40.1	32.5	23.9	3.4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40.9	31.3	27.4	0.4	100.0 (83)
고졸	39.0	35.1	24.3	1.6	100.0 (664)
대졸	37.8	33.1	26.9	2.2	100.0 (2,005)
대학원이상	32.8	25.1	37.3	4.9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36.6	31.2	28.9	3.3	100.0 (952)
비취업	38.2	33.7	26.3	1.8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9.1	43.1	37.8	0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43.0	28.9	25.9	2.2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39.9	32.7	26.1	1.3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38.7	34.5	24.8	2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37.3	33.4	25.6	3.7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38.6	31.3	26.6	3.5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31.4	30.7	36.6	1.3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36.0	28.8	32.1	3.1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26.3	48.5	25.2	0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26.8	28.4	36.6	8.1	100.0 (37)
1,000만 원 이상	35.6	28.7	34.9	0.7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36.1	31.5	30.9	1.5	100.0 (1,480)
둘째아 이상	39.5	34.3	23.0	3.1	100.0 (1,431)

5. 수유에 관한 사항

□ 임신 중 계획한 수유 방법<표39>

○ 임신 중 계획한 수유 방법은 완전 모유수유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유수유와 인공유 수유를 함께 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는 47.1%, 모유수유와 병행하지 않고 인공유 수유만을 계획한 경우는 5.9%, 모유수유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경우는 7.3%로 나타남.

<표 39> 임신 중 계획한 수유 방법

(단위 : %, 명)

	완전 모유수유	모유+인공유 수유	인공유 수유	계획하지 않음	계(명)
전체	39.8	47.1	5.9	7.3	100.0(2,911)

□ 수유방법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표40>

○ 수유방법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대중매체(23.4%)로 나타남.

- 다음으로 산후조리원(16.3%), 친정(15.4%), 육아서적(1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0> 수유방법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단위 : %, 명)

	1	2	3	4	5	6	7	8	9	10*	계(명)
전체	8.9	1.8	0.2	16.3	6.3	15.4	2.1	23.4	15.3	10.3	100.0(2,684)

주: **1** 의료기관, **2** 보건소(보건의료원), **3** 조산소, **4** 산후조리원, **5** 배우자, **6** 친정, **7** 시댁, **8** 대중매체(인터넷, TV 등), **9** 육아서적, **10** 기타

* 기타에 '없음', '스스로 판단', '개인생각' 등 포함

□ 모유수유를 계획한 이유[<표41>, <표42>]

○ 모유수유를 계획한 가장 중요한 이유(1순위)는 아기의 신체적 건강(72.1%)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아기의 정서적 발달(17.9%)이 높게 나타남.
- 모유수유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산모의 건강 및 편리성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 모유수유 선택한 이유(1순위)

(단위 : %, 명)

	아기의 신체적 건강	아기의 두뇌 발달	아기의 정서적 발달	산모의 건강	편리성	기타	계(명)
전체	72.1	4.2	17.9	1.7	3.9	0.2	100.0(2,499)

○ 모유수유를 선택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2순위)는 아기의 정서적 발달(44.6%)로 나타남.

- 다음으로 아기의 두뇌 발달(26.4%)이 높게 나타남.
- 모유수유를 선택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2순위)로서 산모의 건강 및 편리성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 모유수유 선택한 이유(2순위)

(단위 : %, 명)

	아기의 신체적 건강	아기의 두뇌 발달	아기의 정서적 발달	산모의 건강	편리성	기타	계(명)
전체	18.7	26.4	44.6	4.7	5.4	0.1	100.0(2,480)

□ 출생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시도 여부<표43>

- 아기의 출생 후 24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시도한 비율은 68.3%로 나타남.
 - 모유수유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는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 출생 24시간 이내 모유수유 시도 여부

(단위 : %, 명)

	모유수유 시도	모유수유 시도하지 않음				계(명)
		산모건강이유	신생아건강이유	계획 부재	기타	
전체	68.3(1,967)	71.1	14.5	6.0	8.5	100.0(944)
						100.0(2,911)

□ 모유수유율 및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표44>

- 조사시점에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비율은 93.7%로 나타남.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유량 부족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엄마의 질병(23.7%), 아기의 건강(15.2%), 아기의 유두 혼동 및 거부(15.0%)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모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비율 및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모유수유율) 모유수유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월 평균 가구소득 700~800만 원 미만 산모로 모유수유율은 99.2%로 나타남. 다음으로 모유수유율이 높은 집단은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산모(95.2~98.3%), 취업한 산모(95.0%), 대학원 이상의 산모(94.9%) 순으로 나타남. 반면 모유수유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산모(71.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졸 이하 산모(90.1%), 고졸 이하 산모(90.4%)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엄마의 질병이 가장 큰 집단은 취업 산모, 월 평균 가구소득 200~3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인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로 나타남.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엄마의 취업이 가장 큰 집단은 월 평균 가구 소득 900만 원 이상의 산모로 나타남.

<표 44> 모유수유율 및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명)

	모유수유율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							계	계(명)
		1	2	3	4	5	6	7		
여성 전체	93.7 (2,733)	24.7	8.8	23.7	6.3	15.0	15.2	6.3	6.3 (178)	100.0 (2,911)
거주지										
동부	94.0 (1,945)	22.4	9.1	23.5	7.9	13.0	17.1	6.9	6.0 (119)	100.0 (2,064)
읍면부	92.3 (788)	33.4	7.9	24.3	0.0	22.3	7.9	4.0	7.7 (59)	100.0 (847)
연령										
25세 미만	93.6 (102)	71.2	0.0	10.9	0.0	0.0	0.0	17.9	6.4 (7)	100.0 (109)
25~29세	93.5 (438)	16.1	4.3	34.1	0.0	20.0	14.7	10.9	6.5 (28)	100.0 (466)
30~34세	94.0 (1,140)	19.2	9.0	27.8	8.3	16.9	15.6	3.3	6.0 (72)	100.0 (1,212)
35~39세	93.9 (903)	32.2	11.0	17.4	9.4	5.7	16.0	8.3	6.1 (54)	100.0 (957)
40세 이상	90.5 (150)	20.4	11.9	14.0	0.0	36.6	17.2	0.0	9.5 (17)	100.0 (167)
교육수준										
중졸이하	90.1 (75)	82.0	7.7	0.0	0.0	0.0	10.3	0.0	9.9 (8)	100.0 (83)
고졸	90.4 (597)	30.5	6.4	20.2	4.7	17.7	19.3	1.3	9.6 (67)	100.0 (664)
대졸	94.6 (1,907)	22.1	7.5	29.1	5.6	13.3	12.7	9.8	5.4 (98)	100.0 (2,005)
대학원이상	94.9 (154)	0.0	33.0	0.0	22.8	22.8	21.4	0.0	5.1 (5)	100.0 (159)
취업여부										
취업	95.0 (912)	14.4	14.8	26.0	20.2	7.6	8.9	8.1	5.0 (40)	100.0 (952)
비취업	93.0 (1,821)	28.4	6.7	22.9	1.2	17.6	17.5	5.7	7.0 (138)	100.0 (1,95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71.1 (38)	21.9	5.6	16.8	0.0	23.8	22.3	9.6	28.9 (10)	100.0 (48)
100~200만 원 미만	92.3 (139)	59.6	3.1	6.1	0.0	10.9	20.2	0.0	7.7 (17)	100.0 (156)
200~300만 원 미만	92.1 (746)	23.9	3.7	30.8	1.4	26.0	14.3	0.0	7.9 (56)	100.0 (802)
300~400만 원 미만	93.9 (728)	28.4	8.5	26.7	0.0	10.3	17.5	8.5	6.1 (45)	100.0 (773)
400~500만 원 미만	93.9 (439)	16.2	7.6	18.7	24.8	9.1	7.4	16.2	6.1 (25)	100.0 (464)
500~600만 원 미만	95.5 (270)	9.4	43.5	22.5	0.0	2.0	7.5	15.0	4.5 (10)	100.0 (280)
600~700만 원 미만	95.8 (144)	41.8	0.0	19.6	0.0	11.6	27.0	0.0	4.2 (7)	100.0 (151)
700~800만 원 미만	99.2 (73)	0.0	100.0	0.0	0.0	0.0	0.0	0.0	0.8 (1)	100.0 (74)
800~900만 원 미만	98.3 (38)	0.0	65.1	34.9	0.0	0.0	0.0	0.0	1.7 (2)	100.0 (40)
900~1,000만 원 미만	97.8 (36)	0.0	0.0	0.0	100.0	0.0	0.0	0.0	2.2 (1)	100.0 (37)
1,000만 원 이상	95.2 (82)	0.0	0.0	14.2	55.7	0.0	30.1	0.0	4.8 (4)	100.0 (86)
출생순위										
첫째아	94.2 (1,406)	22.1	8.7	19.4	12.0	15.5	13.7	8.6	5.8 (74)	100.0 (1,480)
둘째아 이상	93.0 (1,327)	27.1	8.9	27.7	0.9	14.5	16.7	4.2	7.0 (104)	100.0 (1,431)

주: 1) **1** 모유량이 부족해서, **2** 유두 및 유방통증, **3** 엄마의 질병으로, **4** 엄마의 취업 때문에, **5**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유두 혼동 및 거부), **6** 아기의 건강 때문에, **7** 기타

□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표45>)

○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의 평균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는 생 후 61.6주로 나타남.

<표 45> 현재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

(단위 : %, 명)

	평균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생후 주수)	계(명)
여성 전체	61.6	328
거주지		
동부	61.0	227
읍면부	64.2	101
연령		
25세 미만	63.5	9
25~29세	61.5	40
30~34세	58.4	133
35~39세	63.6	123
40~44세	69.3	23
교육수준		
중졸이하	56.0	14
고졸	59.4	61
대졸	62.4	238
대학원이상	60.2	15
취업여부		
취업	69.1	62
비취업	60.0	266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4.3	3
100~200만 원 미만	58.6	22
200~300만 원 미만	60.9	94
300~400만 원 미만	61.6	106
400~500만 원 미만	64.2	45
500~600만 원 미만	60.0	28
600~700만 원 미만	58.3	11
700~800만 원 미만	58.8	7
800~900만 원 미만	71.3	3
900~1,000만 원 미만	77.0	1
1,000만 원 이상	72.2	8
출생순위		
첫째아	59.9	150
둘째아 이상	63.0	178

- (거주지) 읍면부에 거주하는 산모의 중단 계획 시기는 생후 64.2주로 동부에 거주하는 산모보다 3.2주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여부) 취업 산모의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는 생후 69.1주로 비취업 산모보다 9.1주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의 모유수유 중단 계획 시기는 생후 63.9주로 첫째아 출산 산모의 경우보다 3.1주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표46>

- 완전모유수유율은 출생 후 1주에서 4주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4주에는 43.2%로 가장 높다가, 생후 1~3개월에 33.8%, 3~5개월에 25.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5~7개월에는 8.8%로 급감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생후 6개월에 보충식을 함께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모유수유율은 출생 후 1주에 91.6%로 높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4주에는 85.5%, 생후 1~3개월에 74.3%, 3~5개월에 61.0%, 5~7개월에 42.5%로 낮아짐

<표 46>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

(단위 : %, 명)

	1.모유	2.모유+인공유	3.인공유	4.모유+보충식	5.인공유+보충식	6.모유+인공유+보충식	계(명)
1주	35.0	56.6	8.4	0.0	0.0	0.0	100.0(2,911)
2주	42.6	48.4	9.0	0.0	0.0	0.0	100.0(2,911)
3주	42.7	45.2	12.1	0.0	0.0	0.0	100.0(2,911)
4주	43.2	42.3	14.5	0.0	0.0	0.0	100.0(2,911)
1~3개월	33.8	40.5	25.7	0.0	0.0	0.0	100.0(2,911)
3~5개월	25.0	30.9	31.5	2.3	7.5	2.8	100.0(2,911)
5~7개월	8.8	6.5	14.0	14.1	43.4	13.1	100.0(2,911)

□ 모유수유 중단 시기 및 중단 이유<표47>

○ 모유수유를 중단한 시기는 평균 생후 19.1주로 나타남.

<표 47> 모유수유 중단 시기 및 중단 이유

(단위 (생후) 주, %, 명)

	중단 시기	중단 이유											계(명)	
		1	2	3	4	5	6	7	8	9	10	기타		
여성 전체	19.1	15.9	5.2	6.0	10.1	11.7	2.1	0.9	1.1	42.4	2.2	2.4	100.0	(2,405)
거주지														
동부	19.3	16.2	5.2	5.7	10.5	11.6	2.1	0.9	1.1	42.3	2.1	2.2	100.0	(1,718)
읍면부	18.2	14.5	5.4	7.4	8.1	11.8	2.0	0.9	1.1	43.0	2.6	3.3	100.0	(687)
연령														
25세 미만	15.9	12.9	7.4	7.0	2.6	17.7	3.3	0.0	0.8	40.4	2.2	5.7	100.0	(93)
25~29세	17.8	17.2	6.3	6.6	8.1	14.3	3.5	1.4	1.3	37.1	2.9	1.4	100.0	(398)
30~34세	19.0	14.9	6.0	6.1	11.0	11.4	1.5	1.0	1.5	41.3	2.6	2.7	100.0	(1,007)
35~39세	20.5	17.0	3.9	6.1	10.4	10.0	1.9	0.6	0.8	45.2	1.7	2.5	100.0	(780)
40~44세	17.6	14.9	2.6	2.9	12.4	12.0	1.9	1.0	0.0	51.9	0.0	0.5	100.0	(127)
교육수준														
중졸이하	17.5	9.1	2.3	0.4	7.5	15.3	6.5	0.0	3.8	43.5	10.1	1.6	100.0	(61)
고졸	16.0	13.1	5.7	6.8	5.3	12.4	2.9	1.5	1.5	46.0	1.8	2.9	100.0	(536)
대졸	20.0	17.5	5.1	6.2	10.4	11.8	1.6	0.8	0.9	41.0	2.4	2.2	100.0	(1,669)
대학원이상	19.6	10.2	5.3	3.5	19.7	8.5	2.8	0.0	1.3	45.8	0.0	2.9	100.0	(139)
취업여부														
취업	18.1	9.8	6.0	4.3	25.3	8.2	1.6	0.7	1.1	39.5	1.8	1.8	100.0	(850)
비취업	19.8	19.4	4.8	7.0	1.4	13.7	2.3	1.0	1.2	44.1	2.4	2.7	100.0	(1,555)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6.8	6.8	5.6	9.8	1.7	16.1	3.1	1.0	0.0	55.9	0.0	0.0	100.0	(35)
100~200만 원 미만	22.3	25.6	4.0	4.4	1.8	13.0	3.6	0.6	0.2	40.3	4.1	2.4	100.0	(117)
200~300만 원 미만	17.9	14.1	5.0	7.6	2.3	15.1	2.0	1.2	0.8	46.5	2.7	2.8	100.0	(652)
300~400만 원 미만	19.9	20.6	5.1	6.6	5.6	12.3	2.4	0.5	0.6	41.5	2.6	2.3	100.0	(622)
400~500만 원 미만	19.2	15.3	5.4	4.4	12.4	10.7	2.1	0.7	1.6	44.4	1.7	1.4	100.0	(394)
500~600만 원 미만	19.4	14.4	5.9	5.7	19.9	5.9	2.1	1.0	2.9	36.5	1.6	4.0	100.0	(242)
600~700만 원 미만	19.6	12.4	5.0	6.7	19.6	11.7	1.0	2.0	1.2	37.7	0.5	2.2	100.0	(133)
700~800만 원 미만	18.7	9.5	7.5	3.0	23.2	5.5	4.3	0.0	0.6	42.7	0.0	3.7	100.0	(66)
800~900만 원 미만	16.5	2.7	0.0	3.3	29.0	2.4	0.0	0.0	1.6	61.0	0.0	0.0	100.0	(35)
900~1,000만 원 미만	19.0	10.6	4.2	2.3	29.9	16.4	0.0	2.1	0.0	29.8	4.9	0.0	100.0	(35)
1,000만 원 이상	18.4	13.5	7.9	4.6	20.9	9.7	0.0	0.9	2.0	35.7	1.9	2.7	100.0	(74)
출생순위														
첫째아	18.7	14.7	6.0	5.8	9.5	13.4	2.0	0.9	0.8	43.2	2.4	1.4	100.0	(1,256)
둘째아 이상	19.6	17.4	4.3	6.3	10.8	9.7	2.2	0.9	1.5	41.5	1.9	3.6	100.0	(1,149)

주: 1) **1** 젖을 땀 시기가 되어서, **2** 유두 및 유방 통증 때문에, **3** 엄마의 질병으로, **4** 엄마의 취업(직장, 사회활동) 때문에, **5**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유두 혼동 및 거부), **6** 수유를 할 수 없는 아기의 건강 때문에, **7** 모유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8** 조제분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9** 모유량이 부족해서, **10** 이유식을 시작해서

- 모유수유 중단 시기가 빠른 집단은 고등학교 재학 이상 고졸 이하 산모(16.0%), 중졸 이하 산모(17.5%), 40~44세 산모(17.6주), 25~29세 산모(17.8주)로 나타남. 또한 모유수유 중단 시기가 비교적 빠른 집단은 비취업 산모에 비해 취업 산모(19.8주),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에 비해 첫째아 출산 산모(18.7주)로 나타남.
- 모유수유 중단 이유로는 모유량 부족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15.9%), 아기의 유두 혼동 및 거부(11.7%), 엄마의 취업(1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표48>

-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가슴 마사지 서비스 비용 지원(56.9%)로 나타남.
 -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은 모유수유 방법 교육 및 홍보(19.0%), 모유수유 시설 확대(13.0%), 모유수유 물품 지원(10.2%) 순으로 나타남.

<표 48>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 명)

	모유수유방법교육 및 홍보	가슴마사지 서비스 비용지원	모유수유 시설 확대	모유수유 물품 지원	기타*	계(명)
전체	19.0	56.9	13.0	10.2	1.0	100.0(2,911)

6. 영아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출생 후 6주까지 출생아의 건강상태<표49>

- 출생 후 6주까지,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다(좋음+매우 좋음)고 느낀 비율은 80.6%로 나타남.

<표 49> 출생 후 6주까지 자녀의 건강상태

(단위 : %, 명)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계(명)
전체	1.2	5.7	12.4	40.0	40.6	100.0(2,911)

□ 출생아의 치료 경험률<표50>

- 출생아의 월령별 원인별 병의원에서의 치료경험률은 0~79.4%로 나타남.
 - (호흡기 감염) 호흡기 감염 질환은 생후 1년 이내에 빈번하게 발병하였는데 호흡기 감염 치료 경험률은 생후 6~12개월 이내에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위장관 감염) 위장관 감염 질환은 생후 1년 이내에 빈번하게 발병하였는데 생후 6~12개월 이내 위장관 감염 치료 경험률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열성 감염) 발열성 감염 질환은 생후 1년 이내에 빈번하게 발병하였는데 특히 생후 6~12개월 이내 발열성 감염 치료 경험률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대 감염) 제대 감염은 생후 4주 이내에 발병하였는데 특히 생후 2~4주 이내의 치료 경험률은 64.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신생아 황달) 신생아 황달은 생후 3개월 이내까지 발병하였으며, 특히 생후 2주 이내 치료 경험률은 79.4%로 높게 나타남.
 - (설소대 절제술) 설소대 절제술은 생후 1년 이내에 빈번하게 발병하

였는데 특히 생후 2주 이내 치료 경험률은 33.7%로 높게 나타남.

-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생후 1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였는데 특히 생후 6~12개월 이내 안전사고의 치료 경험률은 78.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결막염) 결막염은 생후 1년 동안 꾸준히 발병하였는데 특히 생후 6~12개월 이내의 치료 경험률은 58.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표 50> 출생아의 병의원에서의 치료경험률

(단위 : %, 명)

	생후 2주 이내	생후2주~ 4주 이내	생후4주~ 6주 이내	생후6주~ 3개월 이내	생후3개월 ~ 6개월 이내	생후 6개월 ~ 1년 이내	계(명)
(1) 호흡기 감염 (감기,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 등)	2.3	3.6	6.7	15.0	32.2	58.6	2,139
(2) 위장관 감염 (장중첩증, 설사, 구토, 장염 등)	3.4	1.4	2.7	8.6	21.3	65.9	460
(3) 발열성 감염 (패혈증, 요로감염 등)	4.5	6.4	10.8	13.9	32.7	37.1	121
(4) 제대(배꼽) 감염	46.0	64.8	0.0	0.0	0.0	0.0	62
(5) 신생아 황달	79.4	22.7	0.2	0.2	0.0	0.0	308
(6) 설소대 절제술	33.7	27.3	11.4	11.5	14.5	1.8	125
(7) 안전사고	1.9	1.1	2.8	5.4	10.3	78.6	68
(8) 결막염	10.6	6.8	2.9	7.8	18.3	58.6	80
(9) 기타	23.7	19.3	12.1	14.8	25.3	46.1	221

□ 출생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실천과 사고 경험<표51>

- 생후 6개월까지 출생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항목별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대체로 9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남
 -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만 실천율이 82.2%로 나타났으며 미실천(537건)으로 인한 사고는 82건(15.2%)으로 나타남.

<표 51> 출생아(생후 1년까지)에 관한 주의사항 실천 여부 및 사고 경험

(단위 : %, 명)

	생후 6개월까지				생후 7개월 ~ 1년					
	실천	미실천			실천	미실천				
		사고	무사고	계(명)		사고	무사고	계(명)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등을 대고 재운다.	93.3 (2,720)	0.4	99.6	100.0 (191)	100.0 (2,911)	86.3 (2,533)	4.5	95.5	100.0 (378)	100.0 (2,911)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	82.2 (2,374)	15.2	84.8	100.0 (537)	100.0 (2,911)	81.2 (2,348)	15.9	84.1	100.0 (563)	100.0 (2,911)
아기를 너무 흔들지 않는다.	98.3 (2,864)	6.4	93.6	100.0 (47)	100.0 (2,911)	97.0 (2,824)	13.9	86.1	100.0 (87)	100.0 (2,911)
목욕 중 화상을 입지 않도록 목욕물 온도를 미리 확인한다.	99.8 (2,905)	0.0	100.0	100.0 (6)	100.0 (2,911)	98.9 (2,881)	35.8	64.2	100.0 (30)	100.0 (2,911)
아기를 차량에 태울 때 아기용 카시트를 이용한다.	94.5 (2,733)	0.5	99.5	100.0 (178)	100.0 (2,911)	94.1 (2,723)	8.5	91.5	100.0 (188)	100.0 (2,911)
아기를 혼자 차 안에 두고 내리지 않는다.	99.1 (2,880)	0.0	100.0	100.0 (31)	100.0 (2,911)	98.0 (2,847)	16.5	83.5	100.0 (64)	100.0 (2,911)

- 생후 7개월~1년까지 출생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항목별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아기를 너무 흔들지 않는다.’, ‘목욕 중 화상을 입지 않도록 목욕 물 온도를 미리 확인한다.’, ‘아기를 차량에 태울 때 아기용 카시트를 이용한다.’, ‘아기를 혼자 차 안에 두고 내리지 않는다.’ 등 4개 항목의 실천율은 9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남.
 -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등을 대고 재운다.’의 경우는 실천율이 86.3%로 나타났으며 미실천(378건)으로 인한 사고는 17건(4.5%)으로 나타남.
 -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는 실천율이 81.2%로 나타났으며 미실천(563건)으로 인한 사고는 90건(15.9%)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주의사항의 실천율은 생후 6개월까지와 비교해서 생후 7~12개월에 0.4~7.0%p 감소함.

7. 시사점

□ 산후조리 현황, 인식, 정책 욕구

- 2017년에 출산한 산모는 산후 6주간의 산욕기동안 산후조리를 위해 본인집, 친정, 시집, 산후조리원을 각각 평균 13.2일~22.6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가장 길게 이용한 장소는 본인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장소는 친정으로 나타남.

- 산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로 흔히 산후 기간 또는 산욕기라고 부르는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산모가 출산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간(6주)보다 약 2.3주 길게 나타났으며, 실제 산후조리한 기간과 3.7주의 차이가 나타남.
 - 이를 통해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 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산후조리 기간 동안 배우자의 양육참여도는 대체로 ‘보통’~‘적극적인 편’이며, 가장 많이 참여한 항목은 ‘아기와 놀기(3.8%)’이며, 가장 적게 참여한 항목은 육아정보 습득(3.3점)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출산 후 서비스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의 약 65%가 알고 있고, 22.9%가 아용하였으며, 이용한 산모의 72.9%가 만족(만족+매우 만족)함.

- 정책욕구에 있어서 산후조리를 위한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욕구,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정책에 대한 욕구가 표출됨.
 - 산모의 특성에 따라 정책 욕구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산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취업모의 경우 산모와 배우자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출산 후 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 후 지원 정책의 지원 기간을 설정할 시 보건의료적 관점뿐만 아니라 산모(수요자)의 산후 기간에 대한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대표적인 출산 후 서비스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홍보와 지원 대상 및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사각지대 없이 실효성 있게 설계하여 산모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배우자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75.1%, 이용 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 7천원, 가장 많이 이용한 유형은 산부인과부설 산후조리원이며, 전체 산후조리원의 만족도는 4.0점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녀 돌봄’과 ‘비용 부담’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집이나 병원과 가까운 곳’,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 ‘가격 대비 시설이나 프로

그램이 좋은 곳’, ‘친구나 주변 사람의 평판이 좋은 곳’, ‘산후조리원 종사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가 전문적이며 우수한 곳’의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은 감염 예방관리계획 교육임.
 -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의 경우 교육 받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도 가장 낮게 나타남.
- 대부분의 산모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신생아 돌봄 교육과 모유수유 교육을 응답함.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실제 받은 경험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교육은 산모 안전교육임.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둘째아 이상 출산모보다 첫째아 출산모의 경우 잘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 정보 공개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5% 이상이 출산 후 약 2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표출된 정책 욕구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 정보 공개 확대 등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돌봄 교육과 모유수유 교육의 도움 정도가 높은 만큼 해당 교육의 지속적 내실화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전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에 대한 교육과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산모 안전교육이 필요함.

□ 집(본인집, 친정, 시집)에서의 산후조리

-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부모, (낮)산후조리도우미, 배우자임.
-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필요했던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 신생아 안전 교육, 모유수유 교육, 산모건강관리 교육이었으며 대체로 해당 교육을 (낮)산후조리도우미, 친정부모, 대중매체를 통해 충분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도움이 된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임.
 - 신생아 안전교육의 경우는 필요도에 비해 경험률이 가장 낮음.
-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정보 제공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첫째아 출산모의 경우는 육아정보 제공이 필요함.
- 따라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필요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신생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위해 (낮)산후조리도우미나 대중매체를 통해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산모의 정책 욕구가 반영된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첫째아 출산모 등 산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산후 건강 상태 및 정책 욕구

- 많은 산모가 임신기간보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산전수진율은 지난 10년 이상 거의 1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15)인데 비해 산후수진율은 94.6%로 차이를 보임.

- 특히, 25세 미만 산모,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산모,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 산모는 산후수진율이 9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모는 첫째아 출산모에 비해 산후수진율이 낮게 나타남.
- 산후조리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0.3%이며 실제로 에딘버러검사 결과 산후우울 위험군은 33.9%로 나타남.
 - 특히, 25세 미만 산모,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산모, 비취업 산모, 저소득 가구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모의 경우 산후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료 산후진찰 지원,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 산모 건강관리 방법 교육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산후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후 진찰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가 균형 있게 분포하도록 점검하고 특히 25세 미만 산모,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산모,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산후 의료 이용의 접근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모의 정신건강 수준은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모가 양육하는 자녀의 건강과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산후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25세 미만 산모,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산모, 비취업 산모, 저소득 가구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모의 경우 정책 관심 대상으로서 관리가 필요함. 또한, 산후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배우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산후조리 기간에 배우자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모유수유 및 영아 건강·안전관리

- 모유수유율은 출생 후 1주에 91.6%로 높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4주에는 85.5%, 생후 1~3개월에 74.3%, 3~5개월에 61.0%, 5~7개월에 42.5%로 낮아짐.
- 출생아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다(좋음+매우 좋음)고 느낀 비율은 80.6%로 나타남.
 - 출생아의 월령별 원인별 병의원에서의 치료경험률은 0~79.4%로 나타남.
- 생후 12개월까지 안전관리 수준은 비교적 높아 사고발생률은 낮게 나타남.
 - 출생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항목별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생후 6개월까지 대체로 90% 이상, 생후 7개월~1년까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등을 대고 재운다.’의 경우는 생후 7~12개월에는 실천율이 7.0%p 감소하여 86.3%로 나타났으며, 미실천(378건)으로 인한 사고는 17건(4.5%)으로 나타남.
 -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 실천율 82.2%, 미실천(537건)으로 인한 사고 82건(15.2%)으로 나타났고, 생후 7~12개월에 실천율이 81.2%로 나타났으며 미실천(563건)으로 인한 사고는 90건(15.9%)으로 나타남.
- 출생아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아기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등을 대고 재운다.’와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함.

□ 결론

-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산모의 산후조리의 현황과 이들의 정책 욕구에 관해 살펴보았음.
 - 향후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조리 장소 이용의 차이, 산후 진찰을 하지 못한 원인 등을 심층면접 등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저학력, 취업 등 산모의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